



20 Years of Classical Music
June 2009

Naxos new releases

8.570992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전곡,
세헤라자데 서곡

윤 매르클
리용 국립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방송 합창단

8.572138



쇼스타코비치:
여자친구들, 스페인에 대한
인사, 룰 브리타니아 외

첼리아 쉐(theremin)
마크 피츠제랄드
폴란드 국립 방송교향악단

8.570599



류재준:
신포니아 다 레퀴엠, 바이
올린 협주곡

김인혜(sop), 김소옥(vn)
루카스 보로비츠 외
폴란드 방송교향악단 외

8.572306



가브리엘 비앙코
기타 리사이틀

메르츠: 기타 소품들
JS 바흐: 소나타
BWV1005
코쉬킨: 기타 소나타

8.570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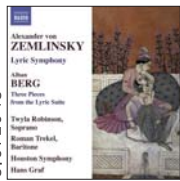
하차투리안:
바이올린 협주곡,
콘체르토 랩소디
니콜라스 코예케르트(vn)
호세 세레브리에르
로알 필하모닉 오케
스트라

8.572111



그레이트 무비 테마
Vol.2
칼 데이비스
로알 리버풀 필하모
닉 오케스트라

8.572048



첼린스키: 서정교향곡
베르크: 서정 모음곡
의 3 소품
로만 트레첼(bar),
트윌라 로빈슨(sop)
한스 그라프
휴스턴 심포니

8.572039



슈베르트:
서곡 (마술피리, 음모
자, 피에라브라스, 로
자문데 외)
크리스티안 벤다
프라하 신포니아

8.570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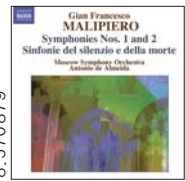
리히터:
6개의 그랜드 심포니
아포 헤키넨
헬싱키 바로크 오케
스트라

8.570931



마르투치:
피아노 협주곡 1번,
추억의 노래들
제수알도 코기(pf),
실비아 파시니(ms)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로마 심포니

8.570879



말리피에로:
교향곡 1,2번,
침묵과 죽음의 교향곡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
스트라

8.559365



푸트:
프란체스카 다 리미
니, 에어와 가보트,
모음곡 E장조 외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오케
스트라

8.572108



스탬프:
In this third
clearing,
그레인저:
즐거움 중 외
토마스 오닐
미주리 대학교 윈드
앙상블

8.570998



베토벤:
피아노사중주
WoO 36-1,2,3
뉴질랜드 피아노 사중
주단

8.553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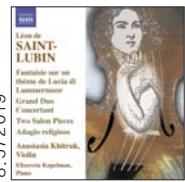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3번 B.18
블라흐 쿼텟 프라하

8.570748



베리오:
듀오 콘체르탄츠 1-3번,
6개의 성격적인 이중주
크리스틴 손 &
존 마커스(vn)

8.572019



생-뤼뱅: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
테, 루치아 디 람페르
무어 환상곡 외
아나스타샤 키트루크(vn)
엘리자베타 코펠만(pf)

8.57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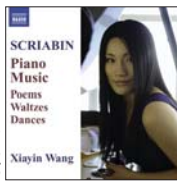
아일랜드:
피아노트리오 2,3번,
판타지트리오, 카바
티나, 홀리보이 외
골드 피아노 트리오

8.57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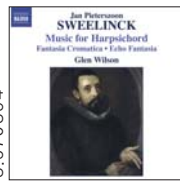
투리나:
바이올린소나타 1,2번,
고전변주곡, 환상곡 외
에바 레온(vn)
호르디 마소(pf)

8.57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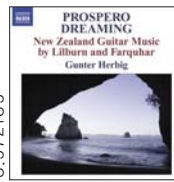
스크리아빈:
피아노작품집
샤인 왕(pf)

8.570894



스벨링크:
하프시코드 작품집
글렌 윌슨(cemb)

8.572185



뉴질랜드 기타 작품집
(릴번과 파쿠하르의
기타 소품들)
군터 헤르비히(guitar)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7호 | May 2009

New Releases

Blu-ray 최신보들

Cover Story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굴다 추모 콘서트 DVD

프리드리히 굴다를 추억하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아주 특별한 콘서트

2005년 1월 27일 도쿄의 스미다 트리포니 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DVD.

우리 시대가 낳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굴다를 기리는 콘서트를 준비하였다. 감미로운 로망스 악장으로 유명한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0번은 아르헤리치가 8살 때 가졌던 첫 데뷔콘서트 당시 연주했었던 곡이기도 하다.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에서는 굴다의 두 아들 파울과 리코가 함께 참여하여 이 콘서트를 더욱 뜻 깊게 만들었다. 카뮈송 형제가 객원단원으로 참여하여 무대를 더욱 빛내주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2번과 아다지오와 론도(르노 카뮈송 독주), 그리고 앙코르로 연주되었던 베토벤 3중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도 만나볼 수 있으며, 리허설 과정의 훈훈한 모습들을 담은 짙막한 보너스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OpusArte OA1004D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V242 외

마르타 아르헤리치

파울 굴다

리코 굴다

르노 카뮈송

고티에르 카뮈송 크리스티안 아르밍

뉴 저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09 DVD CATALOGUE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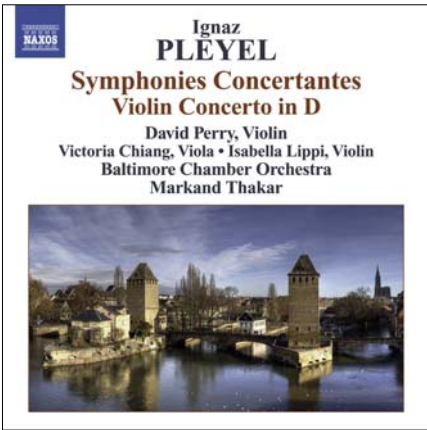


© Klaus Henn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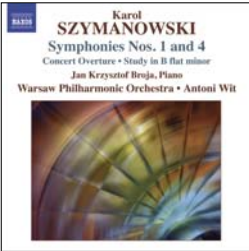


Naxos

www.naxos.com



8.570320
플레엘: 바이올린협주곡, 심포니 콘체르탄테
데이비드 페리, 이자벨라 리피(vn), 빅토리아 치앙(va)/
마칸트 타카/ 볼티모어 챔버
플레엘은 파파 하이든의 애제자였으며, 스트라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고전시대의 마지막 거물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바이올린협주곡은 스승으로부터 계승한 명쾌한 악상을 한층 더 확장된 스케일로 발전시킨 작품으로 특히 감미로운 2악장 칸타빌레가 인상적이다. 두 편의 심포니 콘체르탄테는 각각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독주 악기로 내세운 작품으로, 역시 하이든 풍의 발랄한 기운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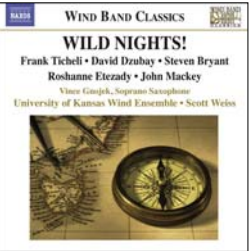
8.570722
시마노프스키: 교향곡 1,4번, 콘서트서곡, 연습곡 Op.4-3
안 크지슈토프 브로아(pf)/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
극찬을 받으며 진행 중인 비트/바르샤바 필의 시마노프스키 교향곡 시리즈의 최신보. 작곡가 스스로 '대위와 화성으로 구성된 관현악 괴물'이라고 평했던 교향곡 1번은 바그너와 R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이 작곡가의 청년기를 대변하는 작품이다. 교향곡 4번은 '심포니 콘체르탄테'라는 부제 그대로, 거의 피아노협주곡과 유사한 외형을 가진 네오 바로크 스타일의 독특한 작품이다.



8.570930
마르투치: 교향곡 2번, 주제와 변주, 가보타, 타란텔라
프란체스코 라 비키아/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디 로마
마르투치는 19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곡가다. 말리피에로, 레스피기, 피제티와 같은 거물급 후배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교향곡 2번은 작곡가를 대표하는 관현악 걸작으로, 이 곡의 초연 당시 이탈리아도 드디어 제대로 된 교향곡을 가지게 되었다는 극찬을 받았던 작품이다. '주제와 변주', '가보타', '타란텔라'는 모두 피아노 솔로 곡들이지만, 작곡가 본인의 관현악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8.572061
니미넨: 플루트협주곡, 클라리넷협주곡
패트릭 갈로와(fl, cond), 미코 라사카(cel)/ 신포니아 핀란드야 유바스쿨라
카이 니미넨(1953년생)은 어떠한 음악사조에도 포함시키기 힘든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핀란드의 작곡가다. 플루트협주곡 '팔로마르'는 이탈리아의 대문호 이탈리아 칼비노의 동명소설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작품이며, '그림자 사이로 고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네'라는 시적인 제목의 클라리넷협주곡 역시 이탈리아 작가 안토니오 타부키의 소설 'Notturmo indiano'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8.572129
맥키: 소프라노색소폰협주곡, 티첼라: 와일드 나이트 외
빈스 그노잭(sax)/ 스캇 와이스/ 캔사스 대학 관악 앙상블
존 맥키의 소프라노색소폰협주곡은 자신의 스승인 코릴리아노의 클라리넷협주곡의 오마주와도 같은 작품으로, '모직', '금속', '나무'로 명명된 가운데 악장들은 각 악장의 이미지를 적절히 대변한다. 로산 에테차디의 '아나히타'는 미와 무서움을 겸비한 조로아스트교의 밤의 여신인 아나히타를 표현한 곡이다. 데이비드 주베이의 '새도우댄스'는 중세 작곡가 페로팅의 오르가눔 Viderunt Omnes를 응용한 작품이다.



8.571258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23(열정), 28, 31번
이딜 비렛(pf)
이딜 비렛은 포르테시모를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큰 윤곽선을 그려나간다. 피아노 톤은 화려하며, 우아하고 섬미적인 소노리티 역시 매혹적이다. 누구나 이 연주들을 듣고 나면 비렛의 스승인 빌헬름 쾰프였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라모폰-



8.571259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7, 8번(피아노편곡)
이딜 비렛(pf)
EMI electrola 음원의 재발매 음반.
7번 교향곡의 알레그레토 악장에서 이딜 비렛은 모든 면에서 확신에 가득 찬 연주를 들려준다. 8번 교향곡의 미뉴에트는 웅대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조형되었다. 이딜 비렛은 인상적인 연주를 완성하였다. 브라보!!
- 브뤼셀 아트 매거진 -



8.570556
야나ček: 관현악모음곡 (카타 카바노바, 마크로폴로스씨 사건)
페터 브라이너/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페터 브라이너는 야나ček의 오페라들의 주요 부분들을 발췌하여 관현악 모음곡의 형태로 간추리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예누파'와 '브로우체씨의 소풍'을 담은 전작에 이어서, '카타 카바노바'와 '마크로폴로스 사건'을 발췌한 두 번째 음반이 등장하였다. 러' 카타 카바노바'는 '예누파'와 더불어 야나ček을 대표하는 양대 오페라 걸작이며, '마크로폴로스 사건'은 불사의 신비한 여인이 등장하는 독특한 소재의 오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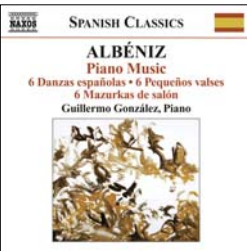
8.570371
셀리고프스키: 관현악협주곡, 피아노협주곡, 폴란드춤 외
보그단 차피에프스키(pf)/ 마리 우슈 스몰리/ 포츠담 필하모닉
타데우슈 셀리고프스키는 2차대전 이후 폴란드 음악계를 주도했던 작곡가 겸 지휘자였다. 폴란드 전통음악에 대한 그의 애정을 담은 작품인 4개의 폴란드 춤곡, 신교전 스타일의 기교지향적인 작품인 피아노협주곡, 버르투키나 루토슬라브스키의 작품에 비길만한 수작인 관현악협주곡, 서정미가 돋보이는 관현악을 위한 야상곡 등 이 작곡가의 대표 관현악작품을 만날 수 있다.



8.571270
슈만 & 그리그: 피아노협주곡
이딜 비렛(pf)/ 안토니 비트/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터키의 국보급 피아니스트이자 낙소스의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핵심 아티스트로 활약해왔던 이딜 비렛이 로맨틱 피아노협주곡의 대명사와도 같은 걸작들인 슈만과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에 도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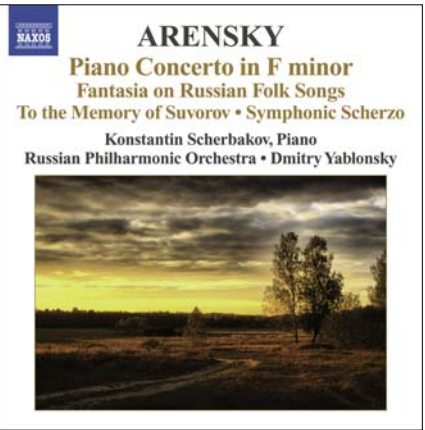
8.572013
피제티: 여름협주곡, 에디포 왕 교향전주곡, 파나테네의 축제 외
미론 미카일리디스/ 테살로니키 국립 교향악단
피제티는 20세기 전반 이탈리아의 거물 작곡가로 중세성과 르네상스 폴리포니에 기반을 둔 보수적인 음악 스타일로 유명하다. '여름협주곡'은 작곡가 스스로 전원교향곡이라고 칭했을 정도로 목가적인 여유로움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작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의 연극공연을 위해 완성한 전주곡과 또 다른 극부수 음악인 '파나테네의 축제'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작곡가의 관심을 담은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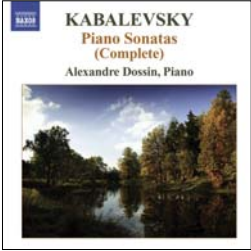
8.572196
알베니스: 6개의 스페인춤, 6개의 살롱 마주르카 외
기예르모 곤잘레스(pf)
스페인 민족주의 음악의 대표작곡가인 알베니스는 '스페인의 쇼팽'이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 이 나라 피아노 음악의 절정을 일구었던 인물이었다. 6개의 작은 왈츠와 6개의 살롱 마주르카는 쇼팽의 영향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들인 반면, 6개의 스페인 춤곡은 이 나라 고유의 향토색을 훌륭히 건반 위에 담아낸 것이다. 스페인의 중견 피아니스트이자 최고의 알베니스 해석가인 기예르모 곤잘레스가 연주를 맡았다.



8.570891
부조니: 6개의 연습곡, 6개의 소품, 쇼팽변주곡 외
볼프 하덴(pf)
부조니 피아노작품 시리즈의 5번째 음반. 당대 최고의 비르투오조였던 작곡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교지향적인 6개의 연습곡과 다양한 시정을 표현한 6개의 소품, 그리고 쇼팽 C단조 전주곡에 의한 10개의 변주곡과 바흐의 코랄 전주곡 'St. Anne' BWV552의 피아노 편곡을 수록하였다. 정상급 실내악단인 트리오 폰테나이의 멤버이자 최근 솔리스트로도 맹활약중인 볼프 하덴의 건실한 연주력이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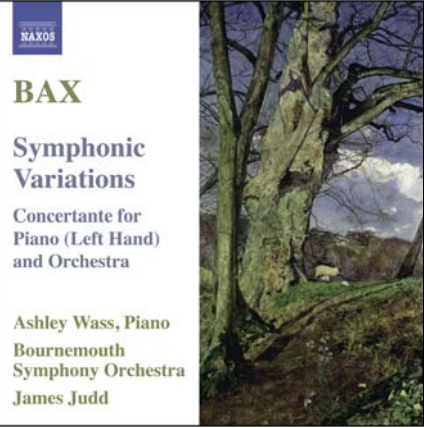
8.570526
아렌스키: 피아노협주곡, 러시아민요 환상곡, 심포니 스케르초 외
콘스탄틴 세르바코프(pf)/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러시아인 필하모닉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제자였던 아렌스키는 러시아 민족주의 계열의 마지막 거장 작곡가이자, 스코랴빈, 라흐마니노프 등을 배출했던 명교사였다. 젊은 시절의 작품인 피아노협주곡은 리스트의 초절기교와 쇼팽의 서정성을 적절히 겸비한 작품이며, 러시아 민요 환상곡은 민족주의 작곡가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담은 작품이다. 크림전쟁의 영웅 수포로프 장군을 기념하는 관현악 소품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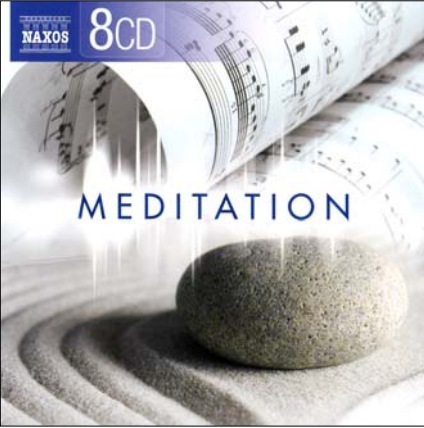
8.570822
카발레프스키:
피아노소나타 1-3번,
소나티나 1,2번
알렉산드르 도신(pf)
2003년 아르헤리치 콩쿠르 우승자 알렉산드르 도신이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마지막 추종자인 드미트리 카발레프스키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에 도전하였다. 프로코피예프의 영향이 느껴지는 1번, 대단히 기교적인 작품으로 작곡가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2번, 달콤한 2악장이 돋보이는 3번, 그리고 신고전주의 성향의 아기자기한 소품인 두 편의 소나티나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169
딕킨슨: 오르간작품 전집
제니퍼 베이트(org)
피터 딕킨슨(1934년생)의 오르간 음악은 과거 영국 대성당 오르가니스트들의 전통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개성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르네상스 작곡가 기본스의 성악곡에 기반을 둔 3편의 전주곡, 미국작곡가 맥도웰의 유명한 소품 '들장미에게'에 기초한 작품인 '푸른 장미 변주곡', 연극 '대성당의 살인자'를 위해 작곡한 '야상곡', 새천년을 기념하는 웅장한 작품인 '밀레니움 팡파르' 등 독특한 작품들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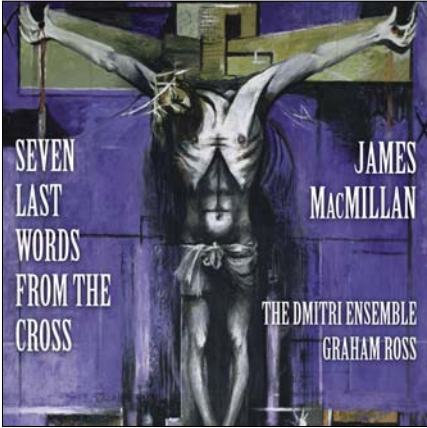
8.570774
백스: 교향변주곡, 왼손을 위한 협주곡
애슐리 워스(pf)/ 제임스 저드/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놀드 백스는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풍의 작품을 모두 5편 완성하였다. 20대 중반의 작품인 교향변주곡은 영웅의 모험을 다룬 서사시와 같은 드라마틱한 작품이라는 평을 들었던 당당한 스케일의 대작이다. 반면 만년에 완성한 왼손을 위한 협주곡은 매력적인 2악장이 돋보이는 아담한 규모의 작품으로, 아일랜드 해안의 안개 낀 밤 풍경을 연상시키는 백스 특유의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특히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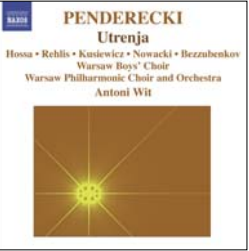
8.508010 [8 for 4]
Meditation Collection (명상을 위한 음악을 모음집)
Various Artists
낙소스의 인기 컴필레이션인 Meditation 시리즈의 8음반을 합본한 스페셜 박스. 멀티 주얼 케이스에 수록된 8장의 음반을 4장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Bach for Meditation', 'Mozart for Meditation', 'Grieg for Meditation', 'Beethoven for Meditation', 'Vivaldi for Meditation', 'Chopin for Meditation', 'Early music for Meditation', 'Gregorian chant for Meditation'



8.570992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전곡, 세헤라자데 서곡
윤 매르클/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방송 합창단
낙소에서 발매한 두 장의 드뷔시 음반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윤 매르클이 라벨의 발레 걸작 '다프니스와 클로에'에 도전하였다. 디아길레프의 발레 뤼스를 위해 완성된 이 작품은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적절히 활용한 라벨 특유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작곡가 스스로 '세 파트로 구성된 안부를 수반한 교향곡'이라고 평하기도 했던 작품이다.



8.570719
맥밀란: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일곱 말씀
그레이엄 로스/ 더 드미트리 앙상블
영국의 가장 인기 있는 현존 작곡가의 한 사람인 제임스 맥밀란의 5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음반. 1993년에 완성한 종교합창곡인 '십자가 위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수록하였다. 4복음서에 기재된 예수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8성부의 합창과 현악앙상블로 표현한 작품으로, 하이든의 동명 걸작에 뒤지지 않는 숭엄한 분위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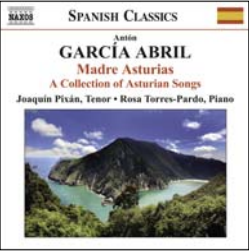
8.572031
펜데레츠키: 아침기도(Utrenja)
여려가수들/ 안토니 비트/ 바르샤바 필하모닉과 합창단
펜데레츠키는 폴란드 레퀴엠과 누가 수난곡과 같은 걸출한 종교 음악 걸작들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아침기도'(Utrenja)는 성금요일을 위한 정교회 전례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앞서 두 작품에 버금가는 대작이다. 1970년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매장과 이듬해 완성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정결한 아카펠라 합창과 효과적인 관현악 반주, 그리고 전자음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8.572036
슈베르트: 질풍노도 시대의 시들에 의한 리트들
카롤린 멜처(sop), 콘스탄틴 볼프(bar)/ 올리히 아이젠로어(pf)
베렌라이터의 신 슈베르트 에디션에 의한 슈베르트 리트 시리즈의 31번째 음반. 질풍노도(strum und drang) 시대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인 리트 17곡을 수록하였다. 슈바르트의 시에 곡을 붙인 '송어'의 4번째 버전, '죽음에', '나의 피아노에게', '병사의 비명', 야코비의 시에 기초한 '한밤중', '사랑의 탄식', '클로에에게', '만성절의 기도', '오르페우스의 노래', '진주', 쇠크의 시에 곡을 붙인 '하가의 탄식' 등을 수록.



8.572138
쇼스타코비치: 여자친구들, 스페인에 대한 인사, 롤 브리타니아 외
헬리아 쉐(theremin)/ 마크 피츠제랄드/ 폴란드 국립 방송교향악단
영화음악 '오드나'를 재구성하였던 지휘자 마크 피츠제랄드가 또 다른 쇼스타코비치의 미공개 작품들을 발굴하였다. 영화 '포드루기'(여자친구들)에서는 전자악기 테레민으로 연주하는 구소련국가 '인테나쇼날'이 특히 인상적이며, '스페인에 대한 인사'와 '롤 브리타니아' 역시 이 음반을 통해 처음 알려지는 진귀한 작품들이다. 원래 교향곡 9번의 1악장으로 처음 의도되었던 심포닉 무브먼트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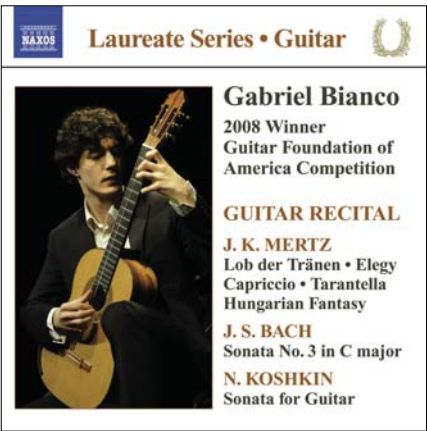
8.572073
가르시아 아브릴:
가곡 모음집 <고향 아스투리아스>
호아킨 픽산(te)
로사 토레스-파르도(pf)
스페인 북서부의 아스투리아스 지방은 고대 스페인의 문화적 전통이 가장 충실히 보존된 지역이다. 작곡가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과 시인 호세 레온은 이 지역의 민속음악적 자신을 기반으로 독특한 연가곡 '마드레 아스투리아스'를 완성하였다. 원작은 관현악반주지만, 본 음반에서는 피아노 반주의 버전으로 수록하였다.



8.570988
하차투리안: 바이올린협주곡, 콘체르토 랩소디
니콜라스 코엑케르트(vn)/ 호세 세레브리에르/ 로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와 함께 사회주의 사실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트로이카의 한 사람이었던 아람 하차투리안.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영웅적인 1악장과 신랄한 2악장, 그리고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출곡 풍의 마지막 악장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1999년 내한하여 KBS 교향악단과 협연하기도 했던 독일의 신예 연주자 니콜라스 코엑케르가 독주를 맡았다.



8.570599
류재준: 신포니아 다 레퀴엠, 바이올린협주곡
김인혜(sop), 김소옥(vn)/ 루카스 보로비츠 외/ 폴란드 방송교향악단 외
올해 서울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작곡가 류재준은 폴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인 펜데레츠키를 사사하였다. 소프라노 독창과 합창을 필요로 하는 그의 '신포니아 다 레퀴엠'은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정우영화장을 추모하는 작품으로, 2008년 바르샤바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초연되어 크게 호평을 얻었던 작품이다. 초연을 담당했던 김인혜 서울대 교수가 음반 녹음에도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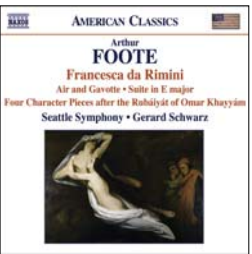
8.572306
가브리엘 비앙코 기타 리사이틀
메르츠: 기타 소품들, JS 바흐: 소나타 BWV1005, 코쉬킨: 기타 소나타
2008년 미국 기타 재단 공쿠르 우승자인 프랑스의 젊은 기타리스트 가브리엘 비앙코의 낙소스 데뷔 리사이틀 음반. 요한 카사파르 메르츠의 사랑스러운 소품들인 '눈물의 찬가', '카프리치오', '타란텔라', '엘레지', '헝가리 환상곡', 그리고 JS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BWV1005의 기타 편곡, 러시아의 기타 대가였던 니키타 코쉬킨이 작곡한 기타소나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8.570931
마르투치: 피아노협주곡 1번, 추억의 노래들
제수알도 코기(pf), 실비아 파시니(ms)/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로마 심포니
마르투치는 19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곡가다. 말리피에로, 레스피기, 피제티와 같은 거물급 후배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피아노협주곡 1번은 소팍과 멘델스존의 영향과 더불어 라흐마니노프의 작품들을 예비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전체 7곡으로 구성된 '추억의 노래'는 심미적이면서도 향수에 어린 독특한 분위기의 관현악 반주의 연가곡이다.



8.570879
말리피에로: 교향곡 1,2번, 침묵과 죽음의 교향곡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20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교향곡 작곡가인 말리피에로는 모두 17편의 교향곡을 남겼다. '4계절과도 같은 4개의 템포'라는 독특한 부제가 붙은 교향곡 1번은 제목처럼 각 계절의 인상을 담은 4개의 악장들로 구성되었고, '엘레지카'라는 부제의 교향곡 2번 역시 느린 악장의 비감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곡이다. 격동과 학살의 시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침묵과 죽음의 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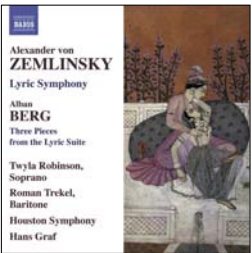
8.559365
푸트: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에어와 가보트, 모음곡 E장조 외
제러드 슈워츠/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서 푸트(1853-1937)는 미국 음악계가 자체적으로 배출했던 최초의 작곡가들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음악스타일은 브람스를 비롯한 독일 후기낭만주의의 영향을 보여준다. 교향적 전주곡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는 같은 제목의 차이코프스키의 걸작과 비교해도 좋을 만큼 빼어난 작품이며, 중세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카이암의 '루바이야트'에서 얻은 4개의 성격적 소품도 독특한 매력을 담고 있다.



8.572108
스탬프: In this third clearing, 그레이너: 즐거운 중 외
토마스 오닐/ 미주리 대학교 윈드 앙상블
미국을 대표하는 관악밴드 레퍼토리들을 엄선한 음반. 거친의 포기와 베스의 선율들을 갈무리한 '캣피쉬 로우', 바흐의 '양들은 편안히 풀을 뜯고'를 그레이너가 편곡한 '즐거운 중', 코플랜드의 '링컨 초상', 금관밴드의 강렬한 포텐셜을 표출한 작품인 제이콥의 '모음곡 E♭장조', 정교한 대위법과 장중한 브라스 코랄이 조화를 이룬 스탬프의 'In this third clearing...'을 수록.



8.572111
그레이트 무비 테마 Vol.2
칼 데이비스/ 로알 리버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의 존 윌리엄스로 불리는 라이트 클래식의 대가 칼 데이비스와 로알 리버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고급의 걸작 영화음악을 연주하였다. '배트맨', '핑크 팬더', '미션 임파서블', '러브스토리', '주라기 공원', '로미오와 줄리엣', '슈퍼맨', '잉글리시 페이션트', '대부', '캐리비안의 해적', '디어헌터' 등의 카바티나, '프랑스 중위의 여자', '세익스피어 인 러브' 등을 수록.



8.572048
첸린스키: 서정교향곡, 베르크: 서정 모음곡의 3 소품
로만 트레켈(bar), 트윌라 로빈슨(sop)/ 한스 그라프/ 휴스턴 심포니
서정(lyric)이라는 단어를 공유하는 두 걸작을 함께 수록한 음반. 첸린스키의 대표걸작인 서정 교향곡은 실제 베르크의 서정 모음곡의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베르크는 서정교향곡의 3악장을 자신의 모음곡에 인용하였던 것. 본 음반에는 작곡가 본인에 의해 현악합주를 위해 편곡된 3개의 악장들을 수록하였다.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중견 악단인 휴스턴 심포니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8.570239
슈베르트: 서곡 (마술하프, 음모자, 피에라브라스, 로자문데 외)
크리스티안 벤다/ 프라하 신포니아
슈베르트는 오페라와 같은 무대 음악으로 성공하길 열망하였고 실제 여러 차례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지만 그 결과는 그리 통통치 못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의 서정적인 선율미로 가득한 매력적인 서곡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었다. 본 음반에는 그의 가장 성공한 오페라 작품인 '피에라브라스'의 서곡, 후일 로자문데에 전용된 '마술 하프' 서곡, 젊은 시절의 습작과도 같은 곡들인 이탈리아 풍의 서곡들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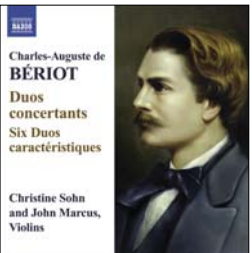
8.570597
리히터: 6개의 그랜드 심포니
아포 헤키넨/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
프란츠 자버 리히터는 '장군들의 군대'라고 불리던 만하임의 궁정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기 이전부터 작곡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1744년에 출판되었던 12개의 그랜드 심포니가 이를 입증해준다. 신보에 담긴 두 번째 세트의 6교향곡은 활기찬 양단 악장과 풍부한 표정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선율의 비틀림이 인상적인 느린 악장을 갖추고 있다. 첫 번째 세트는 8.557818로 발매되었다.



8.570998
베토벤: 피아노사중주 WoO 36-1,2,3
뉴질랜드 피아노 사중주단
본 음반에 수록된 베토벤의 피아노 사중주 3작품은 작곡가의 나이 불과 15세 때 완성된 초기작들임에도, 고전주의 실내악의 정형미(느린 악장을 1악장에 배치하고 마지막 악장을 변주곡으로 마무리한 1번은 예외지만)를 충실히 보여준다. 한창 피아니스트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무렵의 작품을 담게 기교적인 피아노 파트가 전곡을 화려하게 리드해 나가며, 심대 작곡가의 뜻뜻한 생기가 세 작품 모두에서 배어나온다.



8.553378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3번 B.18
블라흐 퀴텟 프라하
프라하 블라흐 퀴텟이 진행중인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8번째 음반. 작곡가의 여러 실내악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현악사중주 3번 D장조를 수록하였다. 이 대작은 전반적으로 리스트와 바그너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채코의 애국가요를 인용한 3악장은 국민주의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드러낸다.



8.570748
베리오: 듀오 콘체르탄초 1-3번, 6개의 성격적인 이중주
크리스틴 손 & 존 마커스(vn)
샤를 오귀스테 드 베리오(1802-70)는 프랑코-벨기에 바이올린 악파의 대부로 평가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다. 그가 남긴 10편의 바이올린협주곡은 현재 입시과제곡의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3편의 듀오 콘체르탄초와 발레 에스파뇰의 모티브에 의한 6개의 성격적 이중주 역시 이 작곡가의 빼어난 선율감과 바이올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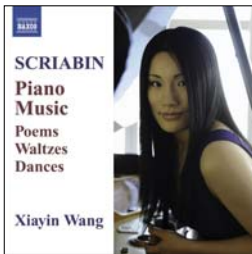
8.572019
생-뤼뱅: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테,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 환상곡 외
아나스타샤 키트루크(vn)/ 엘리자베타 코펠만(pf)
레옹 드 생-뤼뱅(1805-50)은 빈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였다. 그의 연주력과 인기는 파가니니에 필적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바이올린 작품들은 자신의 연주력을 과시하기 위한 작품들인 만큼 화려한 초절기교를 필요로한다. 장대한 규모의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테 외에도 2세트의 살롱 소품, 오베르의 오페라 '라 피양세'에 의한 포푸리,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환상곡 등의 매력적인 소품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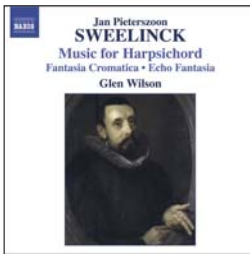
8.570507
아일랜드: 피아노트리오 2,3번,
판타지트리오, 카바티나, 홀리보
이 외
골드 피아노 트리오
존 아일랜드가 작곡한 3편의 피
아노 트리오와 피아노와 바이올
린을 우한 소품들을 수록한 음
반. 작곡가의 첫 출세작인 판타
지 트리오, 1차 대전에 대한 감
성적인 반응을 담은 피아노 트리
오 2번, 안단테 칸타빌레의 서정
미가 빼어난 피아노 트리오 2번
외에도, 자장가, 카바티나, 바가
텔과 같은 매력적인 바이올린 소
품들과 작곡가의 인기작인 '홀리
보이'의 바이올린 피아노 이중주
버전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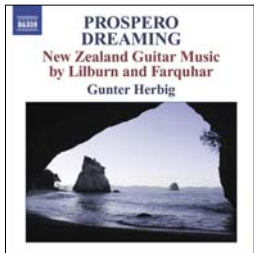
8.570402
투리나: 바이올린소나타 1,2번,
고전변주곡, 환상곡 외
에바 레온(vn)/ 호르디 마소(pf)
투리나의 피아노 작품 시리즈로
호평을 받았던 호르디 마소가 바
이올리니스트 에바 레온과 함께
이 작곡가의 바이올린소나타들
에 도전하였다. 고전적인 외형과
로맨틱한 환상곡 풍의 악상을 접
목한 소나타 1번, 소나타 에스
파블라라는 부제처럼 향토적인
색채로 채색된 소나타 2번, 그리
고 스페인 실내악의 이정표와도
같은 작품인 '살룬케나 환상곡'
등을 수록하였다.



8.570412
스크리아빈: 피아노작품집
샤인 왕(pf)
주목받는 중국의 여류 피아니스
트 샤인 왕의 스크랴빈 작품집.
소팜을 연상시키는 초기 작품들
인 왈츠와 폴로네이즈들 외에도,
자신만의 신비주의 적인 음악세
계가 서서히 정립될 무렵의 작품
들인 2개의 시, '바극적인 시',
'악마적인 시', 최만년의 작품들
인 '불꽃을 향하여'와 2개의 춤
곡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이 작곡
가의 음악적 변화상을 이 음반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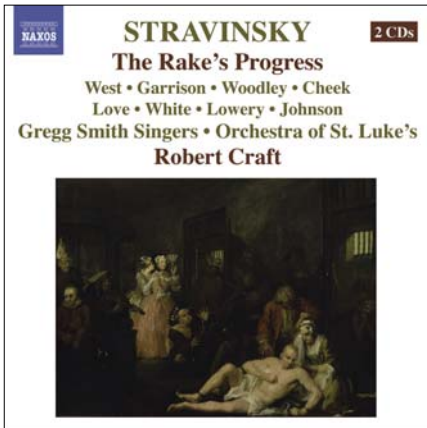
8.570894
스벨링크: 하프시코드 작품집
글렌 윌슨(cemb)
스벨링크는 르네상스를 대표하
는 건반 작곡가이며, 프레토리우
스나 사이트와 같은 걸출한 작곡
가들을 배출한 음악스승이었다.
영국 작곡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
음반에도 피터 필립스와 존 다들
랜드의 작품을 편곡한 두 편의
파반느들이 수록되었다. 관록의
연주자 글렌 윌슨은 환상곡과 토
카타, 그리고 다양한 기존 선율
들에 의한 변주곡들로 알차게 이
음반을 구성하였다.



8.572185
뉴질랜드 기타 작품집 (릴번과
파쿠하르의 기타 소품들)
군터 헤르비히(guitar)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두 작곡가
더글라스 릴번과 데이빗 파쿠하
르의 기타 음악을 담은 음반. 릴
번의 17개의 기타 소품은 기타의
폭넓은 표현 잠재력을 시험하는
곡이며 함께 수록된 이 작곡가의
다른 기타 작품들은 최초로 공개
되는 것들이다. 파쿠하르의 '프
로스테로의 꿈'은 세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으로, '우리는 꿈의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이 작품 한 구절
을 연상케 하는 몽환적인 곡이
다.



8.559624
시에라: 라틴 미사 '프로 파체'
하이드 그랜트 머피(sop), 나다
니엘 웰스터(bar)/ 안드레아스
델프/ 밀워키 심포니
미사 라틴나라는 이 작품의 타이
틀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첫 째는 정통적인 라틴어 미사
통상문에 기초한 작품이라는 점
이며, 두 번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히스패닉 작곡가인 로베
르토 시에라의 혈통적 배경을 말
해 준다. 4성부 합창과 소프라
노, 바리톤의 두 독창자, 그리고
콩가, 봉고와 같은 다양한 라틴
타악기를 포함하는 큰 규모의 오
케스트라 반주를 필요로 하는 작
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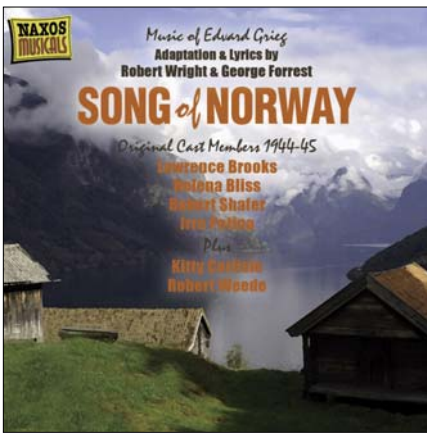


8.660272-73 [2CDs]
스트라빈스키: 레이크스 프로그레스 (난봉꾼의 행각)
여러 가수들/ 로버트 크래프트/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난봉꾼의 행각>은 스트라빈스키가 1951년 베네치아의라 페니체 극장
에서 초연한 현대 오페라의 걸작이다. 18세기 영국 풍속화가 윌리엄 호
거스의 그림에서 착상한 영어 대본을 사용했다. 스트라빈스키가 이 작
품에 착수할 무렵 그의 제자가 되었던 로버트 크래프트는 이 작품의 완
성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1993년에 녹음된 본 음반은 작곡가
자신의 1953년 레코딩에 필적할 만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NAXOS

Nostalgia & Historical

www.naxos.com



8.120879
Song of Norway (그리그의 음악들에 의한 뮤지컬)
1944년 오리지널 캐스팅
'Song of Norway'는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의 생을 그린 뮤지컬
로, 그리그의 매력적인 선율들에 로버트 라이트와 조지 포레스트가 가
사를 붙여 완성한 작품이다. 1944년 LA에서 초연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860회나 공연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도 인기 레퍼토리로 사랑 받았다. 1970년에 제작된
뮤지컬 영화 역시 큰 인기를 누렸다.



8.111352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
초기 레코딩
슈만: 판타지슈튀케, 유모레스크,
슈베르트: 즉흥곡, 악흥의 순간 외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러시
아 피아니스트인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4/50년대 레코딩들이
낙소스를 통해 복각되었다. 48년
녹음인 슈만의 판타지슈튀케 발
체, 50-52년 녹음들이 슈베르트
의 악흥의 순간 1번과 즉흥곡
Op.90-2와 Op.142-2, 그리고
쇼팽의 연습곡 Op.25-5, 마지막
으로 56년 녹음인 슈만의 유모레
스크 Op.20이 수록되었다.



8.111004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무도회
의 초대,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발체 외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푸르트벵글러의 2/30년대 초기
레코딩을 수록한 세번째 음반.
베버와 멘델스존의 인기 관현악
들을 수록하였다. 35년 녹음인
마탄의 사수 서곡, 32년 녹음인
무도회의 초대, 30년 녹음인 핑
갈의 동굴, 29년 녹음인 한여름
밤의 꿈 발체, 그리고 30년 녹음
인 베를리오즈의 라코치행진곡
을 수록하였다.



8.111340
나폴리 송 (오 솔레 미오, 돌아오
라 소렌토로, 산타 루치아 외)
주제페 디 스테파노(te)/ 디노 울
리베레리/ 오케스트라
칼라스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2차
대전 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
테너였던 주제페 디 스테파노, 그
의 감미로운 음성과 유연한 기창
은 오페라 아리아 뿐만 아니라,
나폴리 민요들에서도 두각을 드
러내었다. 카푸아의 '오 솔레 미
오', 코트라우의 '산타루치아',
쿠르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등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근한
나폴리의 노래들을 디 스테파노
의 멋들어진 노래로 수록한 음반.



8.111336
바르톡: 바이올린협주곡 2번, 바
이올린소나타 1번
에후디 메뉴인(vn)/ 아돌프 발러(pf)/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필하모니아
메뉴인은 바르톡에게 무반주 바
이올린소나타를 위촉하여 초연했
을 정도로 이 작곡가와 밀접한
음악적 교감을 나누었다. 메뉴인
의 연주로 바르톡의 대표 바이올
린 작품 두 편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1953년에 녹음된 협주곡 2
번은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와의
협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
게 된다. 알도프 발러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한 소나타 1번의 열
정적인 연주도 놓칠 수 없다.

MARCO POLO

Marco Polo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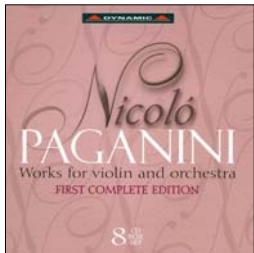


8.225334
슈트라우스 1세: 안네 폴카, 무지크페라인탄체, 탄츠마이스터 외
크리스티안 폴락/ 슬로박 심포니오타 칠리나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에디션의 14번째 음반. 30대 전반기에 완성한 9
편의 개성넘치는 왈츠 및 폴카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슈페를의 축제를
위한 화려한 작품인 '도시생활과 시골생활 왈츠', 역시 슈페를에서 있
었던 캐서린 무도회를 위한 작품인 '탄츠마이스터 왈츠', 마리아 안나
여제를 기리는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안넨 폴카' 등을
수록하였다.



Dynamic

www.dynamic.it



CDS 622/1-8 [8 for 3]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 전집
마시모 쿠피르타, 살바토레 아카르도,
에후디 메뉴헨, 루지예로 리치 외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파가니니의 모든 작품을 집대성한 음반. 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마시모 쿠피르타가 독주를 맡은 바이올린협주곡 전집 외에도, 자타가 공인하는 파가니니 스페셜리스트인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DG와 EMI에서 남긴 녹음들을 빌려왔으며, 메뉴헨이 몽퇴와 협연한 협주곡 1번의 34년 녹음과 루지예로 리치가 70년대에 연주한 협주곡 4번의 실황녹음과 같은 희귀 음원들도 함께 수록하였다.



CDS 596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
오라토리오 <라 주디타>
소피 란디, 라파엘 피손, 카를 가차로시안/
질베르트 베치나/ 앙상블 바로크 드 니스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는 바로크 오페라의 큰 세력이었던 나폴리악파의 대표 작곡가로, 오라토리오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그는 외경의 유디트 이야기를 토대로 두 편의 오라토리오를 완성하였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것은 1697년에 완성한 두 번째 작품이다. 적진에 침투하여 적장의 머리를 베어 조국을 구한 여걸의 이야기를 세 명의 등장인물(유디트, 유디트의 여중, 적장 홀로페르네스)만으로 컴팩트하게 그린 작품으로, 극음악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이 작곡가의 장점이 잘 발휘된 역작이다.



IDIS6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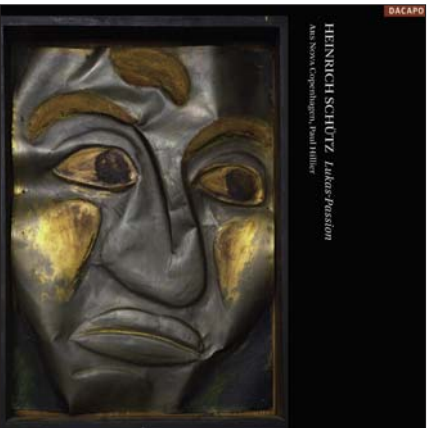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의
희귀 레코딩 (1946-54)
모차르트, 베토벤, 베르디, 사르팡티에,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들

슈바르츠코프가 50년대 전후에 남긴 오페라 아리아들을 담았다. 모차르트 '후궁탈출' 중 Traurigkeit 와 Martern aller Arten, '돈조반니' 중 Mi trad? quell' alma ingrata, 베토벤 피델리오의 Abscheulicher!,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중 '지난날이여 안녕', 푸치니의 '라보엠' 중 '행복했던 시절' 과 '나비부인'의 '어떤 갓 날', '투란도트' 중 '주인님 들어보세요' 등을 수록.



Daca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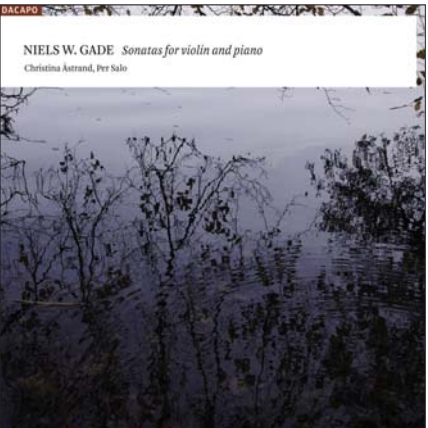
www.dacapo-records.dk



8.226019

쉬츠: 누가 수난곡
폴 힐리어/ 아르스 노바 코펜하겐

하인리히 쉬츠는 독일 바로크 음악의 기초를 만들었던 인물이다. 쉬츠는 마태, 누가, 요한의 3편의 수난곡을 완성하였는데 1666년에 완성한 누가수난곡은 복음서의 22,23장만을 텍스트로 택한 컴팩트한 구성의 아카펠라 합창곡으로 쉬츠가 봉직했던 드레스덴 궁정 교회의 엄숙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현존 최고의 합창지휘자 폴 힐리어와 덴마크를 대표하는 보컬 앙상블인 아르스 노바가 이 걸작에 도전하였다.



8.226066

가데: 바이올린소나타 1-3번
크리스티나 오스트란트(vn)/ 페르 살로(pf)

닐스 가데는 닐센 이전에 덴마크가 배출한 가장 유명한 작곡가였다.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그는 이 악기를 위한 빼어난 소나타 3편을 완성하였다. 20대 중반의 참신한 감각이 느껴지는 1번에서부터 67세 때의 만년작인 3번에 이르기까지 독일 후기낭만음악을 충실히 수용했던 이 작곡가의 특징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히 3번 소나타 로만체 악장의 빼어난 서정이 인상적이다.

OUR Recordings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8.226905

미칼라 페트리 50세
생일 기념 콘서트
알비노니, 비발디, 모차르트, 로타, 바실리에프,
하이드리히, 첸이

리코더의 여왕 미칼라 페트리의 50번째 생일 기념콘서트 실황. 기돈 크레머의 악단인 크레머라타 발티카가 반주를 맡았다. 알비노니의 오보에협주곡 Op.9-2의 리코더편곡, 비발디의 리코더협주곡 RV443과 같은 정통 레퍼토리와 더불어 중국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첸이의 '옛 중국의 아름다움', 카자흐의 젊은 작곡가 바실리에프의 'Valere Lubere', 그리고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니노 로타의 정통 클래식 작품인 현을 위한 협주곡 등이 연주되었다. '해피 버스데이'의 선율을 풍자, 왈츠, 탱고, 차르다슈 등으로 재미있게 변형시킨 하이드리히의 변주곡이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6.22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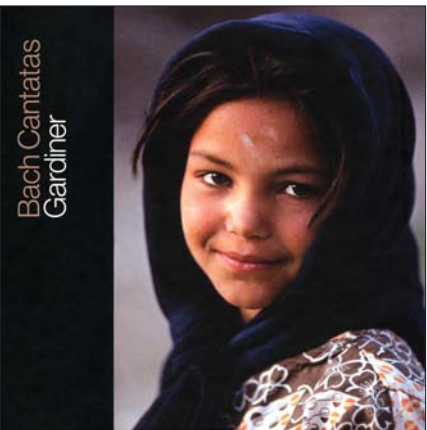
다이알로그 (리코더와 중국피리를 위한 중국과 덴마크의 현대음악들)
미칼라 페트리 (recorder) & 첸유에(xiao, dizi)
[Hybrid-SACD]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피리 연주자들의 만남.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중국의 전통 피리 연주자인 첸유에가 덴마크와 중국의 젊은 작곡가들이 동양과 서양의 피리를 위해 완성한 개성적인 창작곡들을 나누어 연주하였다. 중국 전통 피리인 디치(笛子)와 시아오(簫)와 여러 음역의 리코더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조화가 흥미진진하다.



Soli Deo Gloria [SDG]

www.solideogloria.co.uk



SDG 153 [2CDs]

JS 바흐: 칸타타 Vol.20

[CD1] Septuagesima(사순절 전 제3주일)를 위한 칸타타
BWV 84: 나의 행복에 만족합니다
BWV 92: 나는 하나님 뜻에 맡기나이다
BWV 144: 너희의 것을 가지고 가라

[CD2] Sexagesima(사순절 전 제2주일)를 위한 칸타타
BWV 18: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듯
BWV 144: 경박한 마음을 갖는 자는
BWV 126: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미아 페르손, 질리언 키스, 앙가라트 그루피트(sop)/ 빌케 브룸멜슈트뢰테, 로빈 타이슨(alt)/ 제임스 옥슬리, 제임스 질크리스트(te)/ 조나선 브라운, 슈테판 로게스(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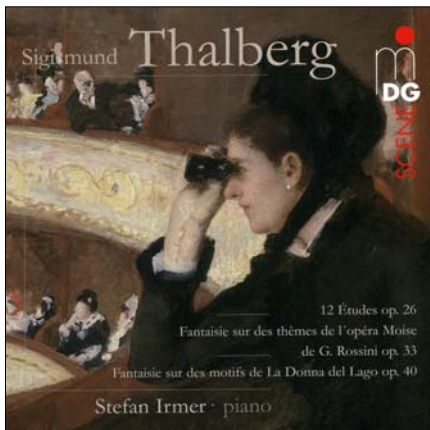
사순절 기간에 즈음하여 발매된 가디너의 바흐 칸타타 순례의 최신보. 사순절 전 2,3주일을 위한 칸타타 6편을 수록하였다. 2000년 2월 20일 네덜란드 나르덴 그로테 교회(CD1)와 영국 사우스웰의 민스터(CD2)에서의 콘서트 실황들을 각각 수록한 것으로, 현재 최고의 오페라 스타로 급부상한 스웨덴 출신의 소프라노 미아 페르손의 9년 전의 싱그러운 노래(CD1)와 가디너가 가장 아끼는 소프라노 가수인 질리언 키스의 청명한 음성(CD2)을 만날 수 있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www.mdg.de



618 1551-2
탈베르크: 12개의 연습곡, 모세 환상곡, 호수의 여인 환상곡 슈테판 이르머(pf)

제네바 출생의 탈베르크는 19세기 중반 리스트의 유일한 경쟁자로 꼽히던 불세출의 비르투오조였다. 그가 남긴 12개의 연습곡은 연주자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기교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기초로 한 화려한 작품들. 두 편의 환상곡은 모두 로시니의 오페라들을 소재로 완성한 것이다. 모세 환상곡은 오페라 '모세와 파라오' 중 파가니니의 유명한 변주곡에도 사용되었던 유대인들의 기도 선율이 감동적인 대미를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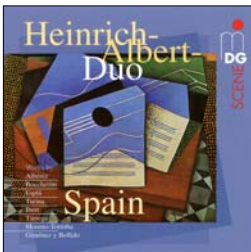
341 1309-2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피아노소나타 2번, 15번 외 지그베르트 람페(cemb, fp)

당시의 여러 고전반악기들로 모차르트의 건반 작품 전체를 녹음 중인 지그베르트 람페의 8번째 음반. 1771년에 제작된 하프시코드의 도량도 랑한 사운드로 빛어낸 변주곡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작은별 변주곡)가 각별하며, 역시 같은 하프시코드로 연주한 피아노소나타 2번도 신선하다. 피아노소나타 15번은 1795년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의 복제품으로 연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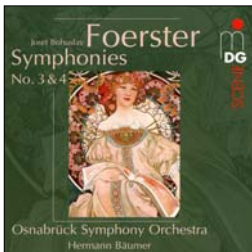


341 1537-2
헨델: 건반작품집 (2개의 사콘느, 모음곡 2,3,7번 외) 지그베르트 람페(ce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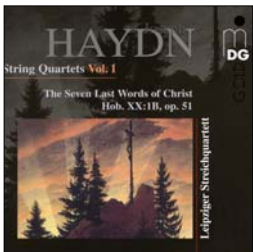
작곡가의 서거 250주기를 기념하여 학구파 연주자 지그베르트 람페가 헨델의 건반작품집을 내놓았다. 전형적인 프랑스 춤곡 모음곡들인 2세트의 모음곡(HWV428, 432)과 이탈리아 교회소나타와 유사한 구성의 모음곡 HWV427 그리고 두 편의 사콘느를 비롯한 건반 소품들을 담았다. 사콘느 HWV430은 '즐거운 대장간'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모음곡 5번 아리아의 오리지널 버전으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는 최초 녹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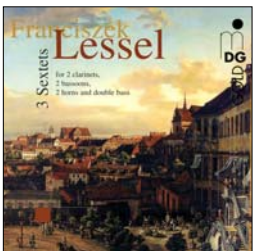
603 1535-2
기타 듀오를 위한 스페인 음악들 (보케리니, 타레가, 투리나, 알베니스 외) 하인리히 알베르트 듀오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스페인 작곡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보케리니의 기타오중주 G448의 '판당고'나 사그레라스가 2대의 기타를 위해 편곡한 타레가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같은 유명한 작품들 외에도, 투리나, 알베니스, 모레노-토로바 등의 스페인 작곡가들의 향토색 짙은 기타 작품들이 하인리히-알베르트 듀오의 열정적인 연주로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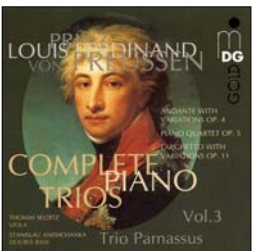
632 1492-2
포에르스터: 교향곡 3,4번 헤르만 베우머 오스나브뤽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음반을 들어본다면 요제프 포에르스터라는 작곡가가 왜 여지껏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는 지 궁금할 것이다. 드보르작 G448의 '집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선보였다. 사순절기간 동안 묵상을 위한 배경음악을 목적으로 완성된 이 걸작은 원래 관현악곡으로 작곡되었지만, 이후 현악사중주, 오라토리오, 건반작품과 같은 여러 버전들로 편곡되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버전은 현악사중주버전이다. 라히프치히 퀴텟의 진지한 연주는 이 걸작의 송고한 감동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준다.



907 1550-6
하이드: 십자가 위의 마지막 일곱 말씀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실내악 명가 MDG를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관록의 실내악단인 라이프치히 퀴텟이 하이드의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여 그의 실내악 걸작인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선보였다. 사순절기간 동안 묵상을 위한 배경음악을 목적으로 완성된 이 걸작은 원래 관현악곡으로 작곡되었지만, 이후 현악사중주, 오라토리오, 건반작품과 같은 여러 버전들로 편곡되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버전은 현악사중주버전이다. 라히프치히 퀴텟의 진지한 연주는 이 걸작의 송고한 감동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준다.



301 1509-2
레젤: 목관육중주 1,3,4번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레젤은 폴란드에서 태어나 빈에서 활동했던 음악가로 파파 하이든의 애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음반에 수록된 3편의 목관 6중주는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의 리더인 클라리넷 연주자 디에터 클렉커가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발견한 것들로, 스승을 연상케 하는 유쾌한 악상들이 3중(클라리넷, 바순, 호른) 6대의 관악기들의 개성적인 소노리티를 통해 펼쳐진다.



303 1549-2
프로이센의 페르난트 왕자: 피아노사중주, 안단테, 라르게토 트리오 파르나수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조카인 페르디난트 공(公)은 뛰어난 플루트 연주자였던 백부와 마찬가지로 작곡과 피아노에서 상당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실내악 명가 MDG의 대표 앙상블인 트리오 파르나수스가 이 작곡가의 피아노 트리오들에 이어서 피아노 4중주 편성을 위한 아기자기한 매력의 두 작품과 우아한 기품이 배어나오는 피아노 5중주를 위한 라르게토를 연주하였다.



309 0399-2
헨델: 칸타타와 트리오 소나타 요한나 코슬로프스키(sop) 무지카 알타 리파

헨델은 20대 전반기를 이탈리아에 머물며 이 나라의 음악양식을 적극 받아들였다. 음반에 수록된 두 편의 칸타타(죽어가는 아그리피나, 달콤한 잠) 역시 이 시기의 작품들로 소프라노 요한나 코슬로프스키의 맑은 미성과 우아한 가창이 이 작품들의 매력을 한층 빛나게 한다. 함께 수록된 3편의 트리오소나타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뒤 하노버 궁정에 재직하던 시절의 작품들로, 젊은 헨델의 싱그러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910 1536-6 [Normal CD] / 610 1536-2 [Hybrid SACD]
클래시카 쿠바나 아네테 마이부르크(fl), 호아킨 클레르흐(guitar), 판초 아마트(tres)
기타리스트 호아킨 클레르흐와 트레(쿠바 고유의 3현 기타) 연주자 판초 아마트는 쿠바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뮤지션들이다. 이들과 동료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카리브 음악의 진한 매력을 담은 음반. 살사, 룸바, 하바네라와 같은 쿠바 유래의 음악부터 유럽 풍의 클래식한 작품들까지 귀에 쏙 들어오는 감각적인 선율과 흥겨운 리듬은 월드 뮤직 애호가들은 물론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도 신선한 감흥을 안겨줄 것이다.



ARTHAUS
MUSIC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354

바그너: 라인의 황금

마리오 호프(보탄), 토마스 뢰베스(알베리히), 에린 케이브스(로게), 크리스틴 한슈만(프리카) 외/
칼 세인트 클레어/ 바이마르 슈타츠헤펠레

바이마르의 무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태어난 바그너의 '링' 사이클

중부 독일 튀링겐 지역의 중심도시인 바이마르는 독일 음악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도시다. 바흐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이며, 리스트가 로맨틱 관현악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던 근거지였기도 하다. 바이마르는 바그너에게도 특별한 곳이다. '니벨룽의 반지'라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머릿속에 처음 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바이마르 국립극장 무대에 처음 공개되어 독일 음악계에 큰 반향을 몰고 왔었던 미카엘 숄츠의 '링' 프로젝트는 이곳이 이 거작의 싹이 처음 자라났던 배양지였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숄츠는 라인의 동기의 첫 음이 연주되기 이전부터 드라마를 시작한다. 노른 역할을 맡은 세 명의 소녀가 주고받는 짧은 대화는 바로 '링'의 아이디어를 처음 담았던 원작인 '지크프리트의 죽음'의 프롤로그를 위해 바그너가 준비했던 대사들을 옮긴 것이다. 본 DVD는 2008년 같은 곳에서 리바이벌된 공연상황을 담은 것으로, 실력과 바그너 가수들의 열연과 바이마르 슈타츠헤펠레의 탄탄한 앙상블, 그리고 미국 출신 지휘자 칼 세인트 클레어의 명쾌한 작품해석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링' 시리즈를 더욱 기대케 만든다.

[보조자료]

○ '라인의 황금'은 '니벨룽의 반지'의 서막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전체 4부작 중 가장 짧으나, 이 거대한 시리즈의 드라마적인 배경과 더불어 이후 3 작품의 구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유도동기(Leitmotif)들이 차례로 제시되는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다. 작품의 대부분은 북유럽 신화를 기초로 바그너 자신이 만들었다.

○ 워낙에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에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곤란하지만,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니벨룽의 난장이 알베리히는 라인의 처녀들이 지키고 있던 황금을 강탈한다. 그는 이 황금을 녹여 절대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만들고, 그 힘을 빌려 지하세계 니벨하임의 지배자로 거듭난다. 한편 신들의 우두머리인 보탄은 거인형제 파츨트와 파프너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새로운 성채 발할라를 완성한다. 하지만 사례를 지급하지 않아 거인들의 위협을 받게 된다. 보탄은 불의 신 로게의 꼬를 빌려 니벨하임으로 내려가 알베리히의 황금을 강탈하여 이로써 거인들의 채무를 변제한다. 모든 것을 잃은 알베리히는 이 반지에 파멸의 저주를 건다. 보탄 역시 반지의 권능에 사로잡히지만, 대지의 여신 에르다의 충고를 받아들여 마지못해 거인들에게 이를 양보하고 만다. 반지는 거인형제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파프너는 파츨트를 살해하고 만다. 알베리히의 저주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보탄은 언제가 이 반지로 인해 신들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다른 신들을 이끌고 발할라로 들어가면서 '라인의 황금'이 종결된다.



모차르트: 가짜 여정원사

아르농쿠스가 마법의 숨결을 불어 넣은 숨겨진 걸작

모차르트가 19세에 작곡한 오페라 부파 <가짜 여정원사>는 공연될 기회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음악적인 문제보다 부파의 틀을 벗어난 기이한 캐릭터와 줄거리 때문이다. 주인공 산드리나(소프라노)는 연인으로부터 의심받아 칼에 찔렸다가 기사화생하여 옛 연인을 찾아 나선다. 벨피오레(테너)는 산드리나를 죽였다고 착각하고 멀리 도망하여 그곳의 숙녀인 아르민다와 결혼하기 직전이다. 이곳에 여정원사로 위장한 산드리나가 나타나고 더 많은 남녀가 가세하여 복잡한 애정관계가 펼쳐진다. 그러나 산드리나와 벨피오레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대본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스트리아의 배우 출신 연출가 토비아스 모레티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을 꾀했다. 두 주인공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살해시도라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것이다. 청초한 소프라노 예바 메이(산드리나), 글래머스타 이자벨 레이(아르민다), 매력적인 금발의 테너 크리스토프 스트렐(벨피오레) 등이 출연했으며, 우리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마법 같은 연주를 펼친 2006년 2월 취리히 오페라 실황이다.



DVBD-OPFINT

헨델: 오를란도

바로크 오페라의 슈퍼스타, 마리아나 미야노비치가 열창하는 헨델

헨델의 오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고 있다. 2009년은 헨델이 타계한 지 250주년 되는 해로서, 바로크 오페라 세리아의 제왕이었던 그의 작품들이 재차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독일 출신임에도 이탈리아 오페라 양식에 능통했으며, 활동은 런던에서 했던 코소모폴리탄이었다. <오를란도>는 그의 42편의 오페라 중 31번째 작품이며 당대에 가장 인기 있던 소재를 다루고 있다. 샤를마뉴 시대의 용장 오를란도는 이국의 공주 안젤리카를 짝사랑하지만 그녀는 아프리카의 왕자 메도로를 사랑한다. 오를란도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광기에 빠지는데, 선한 마법사 조로아스트로가 이런 복잡한 관계를 교통정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2007년 취리히 오페라 실황인 본 영상물은 타이틀 롤을 부른 옛 유고 출신의 콘트랄토 마리아나 미야노비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선사한다. 환칠하고 강마른 체격의 미야노비치는 카스트라토를 연상시키는 특별한 음색과 완벽한 가창력으로 현재 헨델 오페라 최고의 스타로 꼽힌다. 역시 헨델 오페라의 최고권위자인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를 맡았고 엔스-다니엘 헤어초크는 최고급 호텔과 병원을 조합한 절묘한 설정으로 옛 오페라를 흥미롭게 재해석했다.



Arthaus 101 310



opus ARTE www.opusar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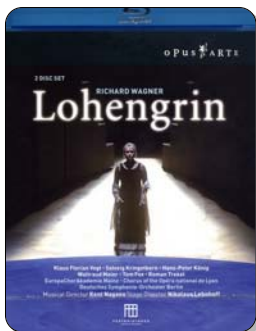


OpusArte OA BD7025D

안무: 노이마이어 / 음악: 쇼팽-카멜리아의 여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원작을 감동적인 발레로 만나다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프 백작>을 쓴 알레산더 뒤마는 같은 이름의 아들을 두었는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원작 <카멜리아의 여인>의 작가가 바로 이 사람이다. 부친과 구별하기 위해 뒤마 피스(fils)는 아들이란 뜻)라 불리기도 한다. 이야기의 실제 모델은 뒤마가 사랑했던 마리 뒤플레시로서, 뒤마와 헤어진 후 폐병으로 2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당시 파리에서 최고의 코르티잔(귀족이나 부호의 후원을 받는 공개적인 애인)이었다. 소설에는 마르그리트로, 베르디의 오페라에는 비올레타로 나온다. 발레 <카멜리아의 여인>은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의뢰를 받은 함부르크 발레의 존 노이마이어가 안무한 것으로, 음악은 뒤플레시가 살았던 1840년대 파리의 문화를 상징하는 쇼팽의 것을 사용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예술감독이자 최고의 무용수였던 마르시아 하이데가 초연했고 그 이후에는 하이데가 총애한 강수진이 이 역을 대표했다. 본 영상물은 2008년 파리 오페라 발레 실황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우아한 발레리나 아녜스 레테스튀가 타이틀 롤을 맡았다. 쇼팽의 음악이 마르그리트의 슬픈 사랑, 비참한 죽음과 기막힌 상승작용을 이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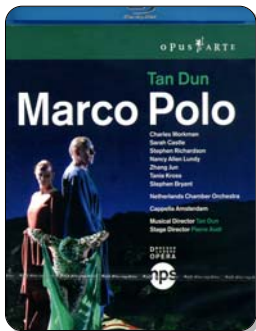


OpusArte OA BD7026D [2Disc]

바그너: 로엔그린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로엔그린>!

<로엔그린>은 리하르트 바그너가 전통적인 오페라 어법에서 자신만의 음악극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위치한 과도기적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연 시간도 무척 길고 음악은 이전의 오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측면까지 파고든다. 그런데 주인공 로엔그린은 성배의 기사이며 그동안 상당히 영웅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2006년 6월 독일 남서부의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최신 실황인 본 영상물에서는 이런 관점이 무너진다. 간결하고도 확신에 찬 연출자 니콜라우스 렌호프는 전설에 기초한 이 이야기를 현대물로 바꾸면서 이전의 어느 프로덕션보다도 엘자와 로엔그린 커플을 눈보다 하얀 백색의 순결한 커플로, 오르트루트와 텔라몬트를 악마적인 검은 커플로 명료하게 대비시켰다. 이를 위해 로엔그린 역에 클라우스 플로리안 포크트, 엘자 역에 솔베이그 크링게보른이라는 리릭 테너와 리릭 소프라노를 캐스팅했다. 모차르트 오페라에 어울릴 가수들이 주역을 노래하면서 <로엔그린>의 분위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쾨트나가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연출자의 의도에 면밀하게 반응한다. 결혼식이 열리는 2막 후반부가 거대한 종교음악처럼 연주된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OpusArte OA BD7029D

동양과 서양이 제대로 만난 우리 시대 최고의 오페라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탄 둔의 첫 오페라 <마르코 폴로>는 1996년에 초연된 이래 현대오페라로서는 드물게 빈, 암스테르담, 로마, 파리, 런던, 뉴욕, 홍콩, 도쿄, 자그레브, 투린 등 수많은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독일 최고의 오페라 잡지로부터 그해의 오페라로 선정된 것은 물론 권위 있는 그로위마이어 상도 받았다. 본 영상물은 2008년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으로 피에르 아우디의 환상적인 연출이 단번에 우리 눈을 사로잡는다. <마르코 폴로>는 다층적 구조의 오페라다. 마르코라는 눈에 보이는 존재와 그의 내면인 폴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3개의 차원, 즉 육체적 여행과 정신적 여행, 그리고 음악적 여행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탄 둔이 그와 반대로 베네치아에서 중국으로 향한 마르코 폴로에 대해 문화의 경계를 넘나든 점에 강한 공감대를 느끼고 중국의 경극과 서구의 음악극, 나아가 아방가르드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전통을 교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오페라의 신세계를 선사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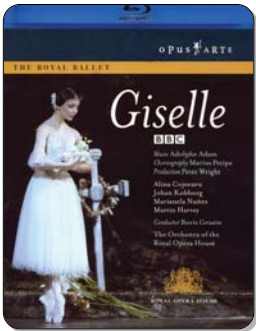
OpusArte OA BD7028D [2Disc]

모차르트: 돈 조반니

사이먼 킨리사이드(돈 조반니)/ 카일 케텔센(레포렐로)/ 마리아 포플라프스카야(돈나 안나)/ 조이스 디도나토(돈나 엘비라)/ 미아 페르손(체를리나)/ 라몬 바르가스(돈 오타비오) 외/ 찰스 매케라스/ 로알 오페라 코벤트 가든

현존 최고의 돈조반니, 사이먼 킨리사이드의 열연을 담은 최신영상물

2008년 9월 런던 로알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한 영상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 최고의 돈조반니 사이먼 킨리사이드의 열연을 담고 있다. 킨리사이드 이외의 다른 출연진들의 면면도 막강하기만하다. 사랑스러운 용모와 사실적인 연기로 유럽 일급 오페라 하우스들을 석권하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소프라노 미아 페르손이 체를리나를,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리릭테너 라몬 바르가스가 돈오타비오를, 새로운 로시니 히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다재다능한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돈나 엘비라를 노래하였다. 코벤트 가든의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한 미국의 베이스 바리톤 카일 케텔센의 레포렐로와 러시아 출신의 신예 마리아 포플라프스카야의 돈나 안나도 나무랄 곳 없다. 이들 최강의 배역진을 일사분란하게 리드하여 최상의 앙상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장 찰스 매케라스의 노련한 지휘와 세계적인 여류 오페라 연출가 프란체스카 잠벨로의 역동적인 연출은 본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드높여준다.



OpusArte OA BD7030D

아당: 지젤 - The Royal Ballet

우리 시대의 전설, 알리나 코조카루의 <지젤>을 드디어 만나다!

프랑스 낭만 발레를 대표하는 걸작 <지젤>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상물이 출시되었고 그중에는 기념비적인 명연도 몇 개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DVD에 주목하는 이유는 로열 발레의 자존심, 알리나 코조카루가 추는 <지젤>이기 때문이다. 1981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태어난 코조카루는 1999년 로열 발레에 입단하여 2년 만에 주역 무용수(프린시펄)가 되었으며 곧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발레리나가 되었다. 영국 발레계에서 코조카루의 위상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동생' 내지 '국민 소녀'라 할 정도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발레리나이자 동작 하나하나에 발레에 대한 열정과 통찰력이 살아 숨쉬는,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전설이 된 스타인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06년 1월, 로열 발레의 본거지인 코벤트가든 실황이다. 1884년 이 발레를 전면 개정한 마리우스 프티파의 판본에 입각한 것임을 명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터 라이트가 연극적인 측면을 대폭 보강하여 우리가 익히 보아온 <지젤>과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코조카루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인 덴마크 출신의 요한 코브그가 알브레히트를 맡았다.



OpusArte OA BD7031D [2Disc]

쇼스타코비치: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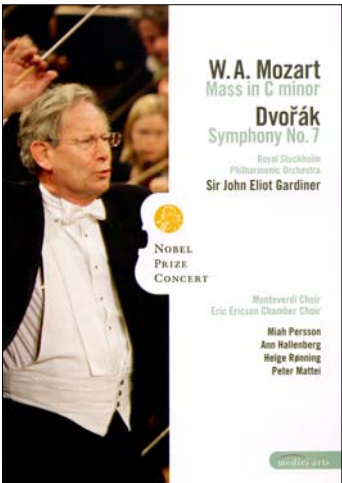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에 부처 행겨두어야 할 기념비적 오페라

2006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소비에트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75)의 탄생 100주년이었다. 이를 기념하여 그의 교향곡과 실내악, 협주곡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오페라 역사상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한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이야말로 2006년에 가장 큰 각광을 받은 작품이라 하겠다. 본 영상물은 2006년 6월에 암스테르담에서 공연된 최신 실황이다. 빈 필, 베를린 필과 더불어 세계 악단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를 이 악단의 상임지휘자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했다. 구 소련권인 라트비아 출신의 안손스는 현존하는 쇼스타코비치 최고의 지휘자답게 음침하면거도 통렬한 이 오페라의 매력을 남김없이 끌어냈다. <므젠스크의 맥베스 부인>은 정부와 놀아나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하는 요부 카테리나 이즈마일로바의 얘기다. 내용 자체가 너무도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섹스 장면도 포함되어 초연 당시에는 '포르노'로 몰리기도 했다. 연출자 마르틴 쿨제이는 현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연극 파트를 총괄하는 거물이며 원초적 욕육이 이성을 짓밟고 암울한 피날레로 치닫는 상황을 극적으로 구현했다. 예로부터한 관능보다 인간사의 어둡고 비밀스런 진실에 더 주목한 프로덕션이다.



Medici Arts DVD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www.euroarts.com



Medici Arts DVD 2057438

노벨상 기념 콘서트 실황 2008 – 가디너
드보르작: 교향곡 7번/ 모차르트: 미사 C단조

미아 페르손(sop), 안 할렌베리(ms), 헬게 린닝(te), 페테르 마테이(bass)/
에릭 에릭슨 합창단,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로알 스토홀름 필하모닉

최고의 과학자들을 위해 가디너가 마련한 최고의 음악축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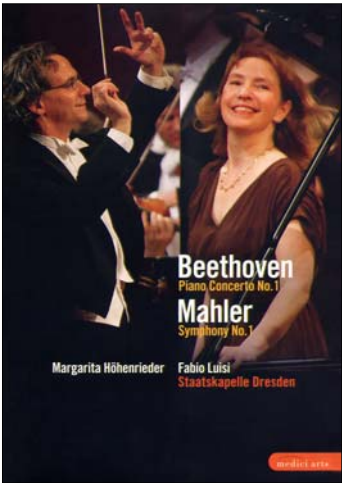
2008년 12월 8일 스토홀름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노벨상 기념 콘서트 실황. 스웨덴 국왕 부처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임석한 가운데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다. 시대악기 연주분야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대표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발돋움한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봉을 잡았다. 프로그램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과 모차르트의 대미사 KV.427. 교향곡 7번은 드보르작의 첫 교향곡 성공작으로, 은은히 흐르는 보헤미아의 향토적인 정서 위로 남성적인 비장미가 전곡을 지배하는 작품이다. 특히 아름다운 선율미가 돋보이는 3악장 스케르초가 유명하다. 흔히 대미사로 불리는 모차르트의 미사 C단조는 크레도와 상투스의 일부, 그리고 아뉴스 데이가 누락된 불완전한 형태임에도 작곡가를 대표하는 종교음악 걸작이다. 스웨덴 출신의 정상급 성악가들인 미아 페르손, 안 할렌베리, 페테르 마테이, 그리고 노르웨이 출신의 테너 헬게 린닝이 솔리스트로 나섰고, 에릭 에릭슨 실내합창단과 몬테베르디 합창단이 연합하여 자신들의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합창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말러: 교향곡 1번 ‘타이탄’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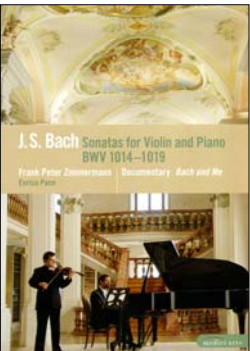
마르가리타 회헨리더(pf)/ 파비오 루이지/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파비오 루이지와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의 폭풍과도 같은 말러 교향곡 1번

파비오 루이지와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는 2009년 5월 내한연주를 통해 최고(最古) 오케스트라의 자긍심을 유감없이 드러낸바있다. 본 DVD는 이들이 2008년 4월 완현의 가스타익 필하모니에서 가졌던 콘서트 실황으로, 내한 연주의 감동을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선물이 될 것이다. 본 DVD는 19:6 화면의 최신 영상으로 선보이는 최초의 말러 교향곡 1번으로, 메디치 아츠가 자랑하는 고풍상도의 화면과 뛰어난 사운드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나른한 봄의 서정과 울동적인 렌틀러,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장송곡에 이어서 폭풍과도 같은 강렬함을 멋지게 구현해낸 루이지와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의 백열의 연주 역시 말러 마니아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것이다. 말러의 지시대로 4악장 코다에서 기립하는 8명의 호른주자들의 모습 역시 장관이다.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은 독일을 대표하는 중견 여류피아니스트 마르가리타 회헨리더가 독주를 맡았다. 부드럽고도 단정한 이 연주자의 터치는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의 고아한 사운드와 멋진 조화를 일궈낸다. 20분 분량의 회헨리더에 대한 포트레이트 영상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Medici Arts DVD 2057718



Medici Arts DVD 2057188

J.S. 바흐: 6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BWV1014-19

프랑크 페터 침머만(vn)/ 엔리코 파체(pf)

프랑크 페터 침머만의 우아하고도 섬세한 연주로 만나는 바흐의 바이올린소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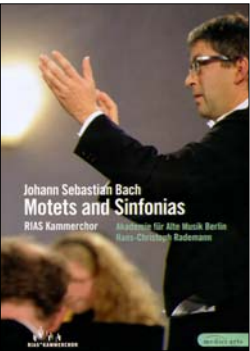
6개의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BWV1014-19는 바흐가 과텐 시절(1717-23)에 남겼던 일련의 기악곡 걸작들 중 하나이다. 둘째 아들 카를 필립 엠마누엘이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아버지의 가장 빼어난 걸작들 중 하나'라고 회고했을 정도로 유려한 선율미와 군더더기 없는 구성, 그리고 독주악기와 반주악기 사이의 적절한 밸런스를 자랑한다. 특히 BWV1017 중 시실리안느의 멜랑콜리한 선율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바흐 작품 연주에 항상 큰 열정을 보여 왔었던 독일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프랑크 페터 침머만이 이 아름다운 작품들에 도전하였다. 시대악기연주가 일반화된 지금 하프시코드가 아닌 피아노 반주에 의한 이 연주가 다소 구식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나, 작품에 담긴 바흐의 우아미를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2008년 5월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연주홀로 손꼽히는 폴링 수도원의 도서관홀에서 있었던 실황을 담은 것이며, 바흐의 작품세계에 관한 침머만의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6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Bach & Me'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바흐: 모테트와 신포니아

RIAS 실내합창단/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RIAS 실내합창단 창립 60주년(2008)을 기념한 바흐의 향연

RIAS 실내합창단은 1948년에 창단되었다. 소규모 그룹의 방송 합창단으로 특정한 오케스트라에 종속되지 않은 채 현대적인 레퍼토리를 개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체였으나 유능한 역대 지휘자들, 특히 1987년에 취임한 마르쿠스 크리드에 의해 무반주 합창과 고음악 연주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독일 최고의 합창단으로 조련되었다. 본 영상물은 2008년 10월, 베를린의 한 유서 깊은 교회에서 있었던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을 담았다. 동 합창단과 최고의 앙상블을 이룬다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가 반주를 맡았다. 바흐의 중 고음악 중에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BWV 225번부터 228번까지 연주되는 가운데 칸타타 중에서 빼어난 신포니아들이 간주곡처럼 삽입된다. 이중 가장 유명한 곡은 BWV 227번인 '예수, 나의 기쁨'이다. 2007년 시즌에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한스 크리스토프 라데만은 이 합창단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지극히 섬세하고 고급스런 소리를 이끌어낸다. 화질과 음질 면에서도 단연 최고다.



Medici Arts DVD 2057408

베르디: 레퀴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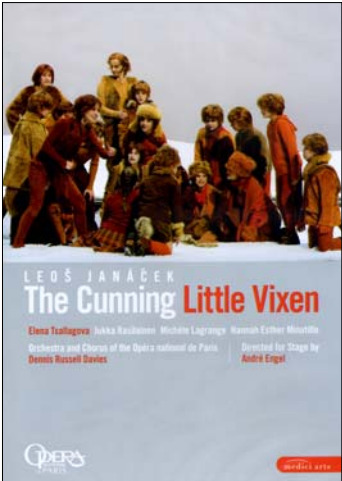
노르마 판티니(sop)/ 안나 스미르노바(ms)/ 프란체스코 멜리(te)/ 라파엘 시벡(bass)/
로린 마젤/ 심포니카 토스카니니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에서 토스카니니 50주기로 펼쳐진 진혼곡!

베네치아의 중앙 광장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은 8세기 무렵에 성 마르코의 유골 납골당으로 건립되었다가 11세기 말에 재건된 것으로 비잔틴 양식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자 세계 최고 성당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에 걸쳐 활약한 위대한 음악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가 오랫동안 봉직했던 음악의 성지이기도 하다. 2007년 11월, 이곳에서 이탈리아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1867~1957)의 서거 50주년을 기리는 콘서트가 열렸다. 수많은 진혼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극적인 박력이 넘치는 베르디의 레퀴엠을 대지휘자의 이름을 물려받은 토스카니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렌체 가극장 합창단이 연주했다. 지휘대에는 토스카니니로부터 여렸을 때 신동이란 칭찬을 들었던 거장 로린 마젤이 올랐고 최근에 한창 주가를 올리는 노르마 판티니, 프란체스코 멜리 등 젊은 대가들이 독창진용을 구성한다. 연주 자체도 훌륭하거나와 산마르코 성당의 뛰어난 음향효과, 카메라 워크를 잘 살린 성당 내부의 웅장한 모습 등에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



Medici Arts DVD 2072438



Medici Arts DVD 3078388

야나체크: 영리한 암여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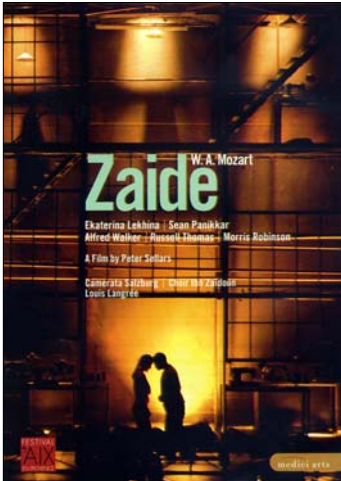
엘레나 살라고바(암여우)/ 유카 라실라이넨(숲지기)/ 미셸 라그랑에(아내) 외/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 파리 국립 오페라

최고의 우화 오페라가 지독하게 아름다운 무대로 재탄생하다
체코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의 <영리한 암여우 이야기>는 여러 동물과 곤충이 등장하는 오페라다. 주인공은 사람 손에서 자랐다가 탈출한 영리한 암여우 비스트로우스카! 그러나 동화 오페라는 아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 생명체들을 그려내고 있지만 주인공 암여우도 어처구니없이 죽어버리고 그 새끼들이 다시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뿐이라는 냉혹한 법칙을 날카롭게 그려낸다. 사람들도 등장한다. 어린 암여우를 잡아다 기른 것도, 도망 친 후에 가정을 꾸린 암여우를 총으로 쏘 죽이고 애인에게 그 가족을 선물하는 것도 인간이다. 100분도 못 미치는 짧은 시간에 자연의 섭리와 인간 세상의 면모를 통찰한 듯한 감동을 안겨주는 명작이다. 본 영상물은 2008년 바스티유 극장에서 공연된 파리 국립 오페라 실황이다. 아직도 공부를 병행하는 어린 가수지만 러시아 출신의 새로운 미녀 소프라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엘레나 살라고바가 타이틀로로 출연한다. 철학도 출신의 연출가 앙드레 엔겔은 자연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군락과 인간을 상징하는 철로를 기본으로 삼은 지독하게 아름다운 무대로 인도하면서 모든 관객을 단번에 사로잡아 버린다. 최고 수준의 영상미를 보장하는 보기 드문 실황이다.

[보조자료]

○ [줄거리] (1막) 조그만 새끼 암여우 비스트로우스카는 개구리 때문에 낮잠에서 깬 수렵장 관리인에게 잡혀 그의 집에서 키워지게 된다. 그 집의 개가 친해지려 하지만 암여우는 자연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다가 닭들을 공격하여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2막) 영리한 암여우는 꾀를 부려 오소리의 굴을 차지한다. 한편 인간들의 마을에서는 수렵장 관리인이 암여우를 잃은 것을 아쉬워하는 가운데 테린카라는 한 여인을 좋아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자연에 적응한 암여우는 맘에 드는 숫여우를 발견하자 단번에 유혹해서 가정을 이룬다. (3막) 테린카와 결혼하게 된 남자는 하라슈타라는 행상 겸 밀렵꾼이다. 하라슈타는 암여우를 발견하자 테린카의 목도리 감이라며 총을 쏜다. 암여우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수렵장 관리인은 다시 어린 암여우와 개구리를 발견하고 옛 일을 떠올리는데 개구리는 당신이 전에 본 것은 자기 할아버지라고 소리치며 달아난다.

○ 레오시 야나체크(1854~1928)은 체코어로 된 오페라를 남긴 바람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유럽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특히 50세가 지난 다음에야 본격적인 오페라를 쓰기 시작했으므로 그의 작품에는 인간과 그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돋보인다. <영리한 암여우 이야기>는 그의 오페라 중에서 <예누파> 다음으로 서구 극장에서 환영받는 작품이다.



Medici Arts DVD 3078388

모차르트: 차이데

에카테리나 레히나(차이데)/ 선 파니카(고마츠)/ 알프레드 워커(알라침)/ 러셀 토마스(술탄) 외/
루이 랑그레/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피터 셸라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재창조된 모차르트의 미완성 오페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 ‘편히 쉬세요, 내 사랑’을 담고 있는 ‘차이데’는 모차르트의 미완성 징슈필이다. 그는 1780년 이 작품에 착수하나, ‘이도메네오’를 작곡하기 위해 손을 댄 이후로 이 작품은 영원히 미완성작으로 남았다. 대부분의 대사가 사라진 상태여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시 유행하던 탈출오페라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두 노예 차이데와 고마츠, 그리고 술탄의 삼각관계와 탈출이라는 내용은 2년 뒤의 ‘후궁탈출’과 유사하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들을 재해석해왔던 피터 셸라스는 이 작품에서도 개성적인 심미안을 드러내었다. 배경은 마치 감옥을 연상시키는 봉제공장으로 옮겨졌으며, 술탄은 지배인으로, 노예들은 착취당하는 직공들로 바뀌었다. 등장하는 모든 남성 배역을 유색인종 가수들로 캐스팅한 점도 독특하다. 모차르트의 극음악 ‘이집트의 왕, 타모스’의 음악과 중동 풍의 즉흥연주를 적절히 삽입하였고, 오프 엔딩으로 극을 마무리하였다. 이 프로덕션은 2006년 빈 페스티벌에 처음 공개되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것으로, 본 DVD는 2008년 액상 프로방스 페스티벌에서 리바이벌 되었던 공연을 담은 것이다.

[보조자료]

○ 술탄의 노예로 잡혀있는 차이데와 고마츠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차이데를 흠모하던 술탄은 고마츠를 시기하게 된다. 알라침의 도움으로 차이데와 고마츠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피터 셸라스는 임의로 엔딩을 덧붙이지 않고, 각자의 상상력을 동원해야하는 이른바 Open Ending 스타일로 극을 마무리하였다.

○ 피터 셸라스는 클래식 오페라들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창조함으로써 논란과 명성을 함께 얻었던 미국의 오페라 연출가다. 1989년 크랙 스미스가 이끄는 임마누엘 뮤직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현대의 뉴욕을 배경으로 재해석했던 모차르트의 다 폰테 3부작(코지 판 투테, 돈조반니, 피가로의 결혼)이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으며, 이후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여러 오페라들을 재해석해왔다.

○ 주인공 차이데를 노래한 에카테리나 레히나는 2007년 플라시도 도밍고가 주최하는 오페렐리아 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함으로써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러시아 출신의 소프라노다. 모스크바의 노바야 앙상블의 핵심멤버였으며, 이후 빈 폴크스오퍼와 뮌헨 슈타츠테아터, 그리고 베를린 슈타츠 오퍼 등에서 밤의 여왕과 올림피아 등의 콜로라투라 배역으로 호평을 받았다.

opus ARTE

Opus Arte DV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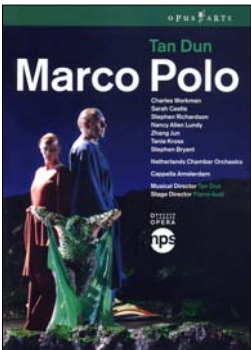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A1009D [2DVDs]



Opus Arte DVD OA1008D [2DVDs]



Opus Arte DVD OA1010D

모차르트: 돈 조반니

사이먼 킨리사이드(돈 조반니)/ 카일 케텔센(레포렐로)/ 마리아 포플라프스카야(돈나 안나)/ 조이스 디도나토(돈나 엘비라)/ 미아 페르손(체를리나)/ 라몬 바르가스(돈 오타비오) 외/ 찰스 매케라스/ 로알 오페라 코벤트 가든

현존 최고의 돈조반니, 사이먼 킨리사이드의 열연을 담은 최신영상물

2008년 9월 런던 로알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한 영상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대 최고의 돈조반니 사이먼 킨리사이드의 열연을 담고 있다. 킨리사이드 이외의 다른 출연진들의 면면도 막강하 기만하다. 사랑스러운 옹모와 사실적인 연기로 유럽 일급 오페라 하우스들을 석권하고 있는 스웨덴 출신의 소프라노 미아 페르손이 체를리나를,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리릭테너 라몬 바르가스가 돈오타비오를, 새로 운 로시니 히로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의 다재다능한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돈나 엘비라를 노 래하였다. 코벤트 가든의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한 미국의 베이스 바리톤 카일 케텔센의 레포렐로와 러시아 출신의 신예 마리아 포플라프스카야의 돈나 안나도 나무랄 곳 없다. 이들 최강의 배역진을 일사분란하게 리 드하여 최상의 앙상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장 찰스 매케라스의 노련한 지휘와 세계적인 여류 오페라 연출가 프란체스카 잠벨로의 역동적인 연출은 본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드높여준다.

안무: 노이마이어/ 음악: 쇼팽-카멜리아의 여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원작을 감동적인 발레로 만나다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프 백작>을 쓴 알레산드 뒤마는 같은 이름의 아들을 두었는데 오페라 <라 트라비아 타>의 원작 <카멜리아의 여인>의 작가가 바로 이 사람이다. 부친과 구별하기 위해 뒤마 피스(fils)는 아들이란 뜻)라 불리기도 한다. 이야기의 실제 모델은 뒤마가 사랑했던 마리 뒤플레시로서, 뒤마와 헤어진 후 폐병으로 2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당시 파리에서 최고의 코르티잔(귀족이나 부호의 후원을 받는 공개적인 애인)이었 다. 소설에는 마르그리트, 베르디의 오페라에는 비올레타로 나온다. 발레 <카멜리아의 여인>은 슈투트가르 트 발레의 의뢰를 받은 함부르크 발레의 존 노이마이어가 안무한 것으로, 음악은 뒤플레시가 살았던 1840년 대의 파리 문화를 상징하는 쇼팽의 것을 사용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예술감독이자 최고의 무용수였던 마 르시아 하이데가 초연했고 그 이후에는 하이데가 총애한 강수진이 이 역을 대표했다. 본 영상물은 2008년 파리 오페라 발레 실황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우아한 발레리나 아녜스 레테스튀가 타이틀 롤을 맡았다. 쇼팽 의 음악이 마르그리트의 슬픈 사랑, 비참한 죽음과 기막힌 상승작용을 이끌어낸다.

탄 둔: 마르코 폴로

동양과 서양이 제대로 만난 우리 시대 최고의 오페라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탄 둔의 첫 오페라 <마르코 폴로>는 1996년에 초연된 이래 현대오페라로서는 드물게 빈, 암스테르담, 로마, 파리, 런던, 뉴욕, 홍콩, 도쿄, 자그레브, 투린 등 수많은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독일 최고의 오페라 잡지로부터 그해의 오페라로 선정된 것은 물론 권위 있는 그로위마이어 상도 받았다. 본 영상물은 2008년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으로 피에르 아우디의 환상적인 연출이 단번에 우리 눈을 사로잡는 다. <마르코 폴로>는 다층적 구조의 오페라다. 마르코라는 눈에 보이는 존재와 그의 내면인 폴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3개의 차원, 즉 육체적 여행과 정신적 여행, 그리고 음악적 여행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탄 둔이 그와 반대로 베네치아에서 중국으로 향한 마르코 폴로에 대해 문화의 경계를 넘나 든 점에 강한 공감대를 느끼고 중국의 경극과 서구의 음악극, 나아가 아방가르드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전 통을 교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오페라의 신세계를 선사하는 작품이다.



Opus Arte DVD OA1004D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0번,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V242 외

마르타 아르헤리치/ 파울 굴다/ 리코 굴다/ 르노 카뮈송/ 고티에르 카뮈송/ 크리스티안 아르밍/ 뉴 저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리드리히 굴다를 추억하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아주 특별한 콘서트

2005년 1월 27일 도쿄의 스미다 트리포니 홀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DVD. 우리 시대 가 낳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굴다를 기 리는 이 콘서트를 준비하였다. 감미로운 로망스 악장으로 너무나 유명한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0번은 아르헤리치가 8살 때 가졌던 첫 데뷔콘서트 당시 연주했었던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이제 백발이 자연스러운 초로의 여걸은 이 작품을 통해 관조의 경지를 드러내 보인다.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에서는 굴다의 두 아들 파울과 리코가 함께 참여하여 이 콘서트를 더욱 뜻 깊게 만들 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악단으로 급성장한 뉴 저팬 필하모닉과 이들의 젊은 수장인 크리스티안 아 르밍이 반주를 맡았으며, 카뮈송형제가 객원단원으로 참여하여 무대를 더욱 빛내주었다. 프로그램 에 함께 포함되었던 모차르트의 교향곡 32번과 아다지오와 론도(르노 카뮈송 독주), 그리고 앙코르 로 연주되었던 베토벤 3중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도 만나볼 수 있으며, 리허설 과정의 훈훈한 모습 들을 담은 짙막한 보너스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2009 DVD CATALOGUE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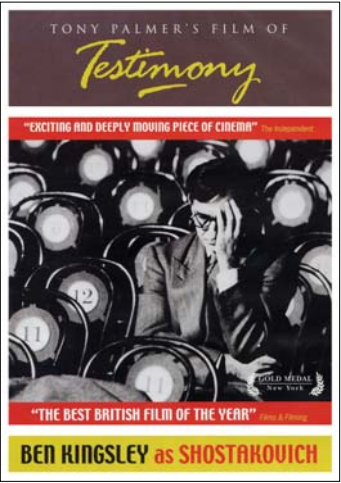
Tony Palmer's Film DVD

www.tonypalmerdv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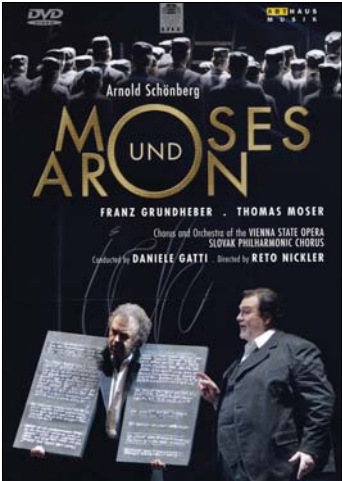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전기영화 - 증언(Testimony)

솔로몬 볼코프의 유명한 쇼스타코비치 회고록에 기초한 음악전기영화

‘증언’(Testimony)은 러시아의 음악학자 솔로몬 볼코프가 1979년에 출판한 쇼스타코비치에 관한 회고록이다. 볼코프는 이 책을 통해 쇼스타코비치가 사회주의와 조국애에 철저히 투신했던 음악가 가 아니라, 스탈린과 소비에트 이념에 지속적으로 저항했었던 반체제인사였음을 역설했다. 냉전당 시 이 책은 사회주의에 비판적인 내용으로 인해 자유주의 진영에서 큰 반향을 얻었지만, 이후 이 책의 진위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과거와 같은 권위 대신 한 작곡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정도로 위상이 급락하고 말았다. 본 DVD에 수록된 영화 ‘증언’은 1988년 에 제작된 전기 영화로, 바로 볼코프의 책을 기초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다소 편향된 시각 으로 인간 쇼스타코비치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위대한 작곡가의 인간적인 면모와 삶의 뒷이야기 들을 맛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영화 ‘간디’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명배우 벤 킹슬리가 쇼스타코비치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연했으며, 루돌프 바르사이/런던 필하모닉, 하워드 쉐리, 칠링 기리안 쿼트 등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연주한 이 작곡가의 대표작들이 영화의 적재적소에서 모습 을 드러낸다.



Tony Palmer's DVD
TPDVD145



Arthaus DVD 101 259

쇤베르크: 모세와 아론

프란츠 그룬트헤버(모세)/ 토마스 모저(아론)/ 일디코 라이몬디(처녀) 외/
다니엘레 가티/ 빈 국립오페라

다니엘레 가티, 쇤베르크가 남긴 미완의 걸작을 지휘하다.

오페라 '모세와 아론'은 구약 출애굽의 리더 모세와 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갈등을 다룬 쇤베르크의 마지막 걸작이다. 쇤베르크는 1928년 스스로 대본을 완성했으며, 1930년 무렵부터 작곡에 착수하였다. 1932년에 2막까지 마무리되었지만, 마지막 3막은 작곡가가 사망했던 1951년까지도 미완성상태로 남아있었다.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쇤베르크가 자신의 모든 창조적 역량을 집중한 작품이기에, 미완성 작품임에도 20세기를 대표하는 오페라 걸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낭창(Sprechgesang)으로 전개되는 모세와 전형적인 리릭 테너로 연기되는 아론은 음악만으로도 두 배역의 대립과 갈등을 상징한다. 황금 송아지 앞에서의 축제장면(2막3장)은 독립곡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다. 본 DVD는 2006년 빈 국립오페라에서 있었던 화제의 공연을 수록한 것으로, 20세기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이탈리아의 명지휘자 다니엘레 가티가 지휘봉을 잡았고, 두 베테랑 가수인 프란츠 그룬트헤버와 토마스 모저가 모세와 아론을 각각 연기하였다.

발터 펠젠슈타인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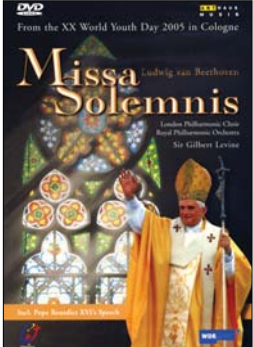
- *베토벤: 피델리오
- *모차르트: 돈조반니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 *베르디: 오텔로
-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 *오펜바흐: 푸른 수염의 기사
- *야나체크: 영리한 암여우

독일 오페라 연출의 전설 발터 펠젠슈타인의 예술세계를 집대성한 박스세트

베를린 코미세 오페라의 설립자이자 총감독이었던 발터 펠젠슈타인(1901-75)은 20세기의 가장 창조적인 무대연출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오페라를 진정한 무대예술의 형태로 재탄생시키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그의 캐리어 동안 190편이 넘는 프로덕션을 연출하였다. 이 특별한 에디션에는 그가 연출한 7편의 오페라들의 진귀한 기록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을 매료시켰었던 그의 전설적인 연출을 이 에디션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수록된 필름들은 디지털 포맷으로는 최초로 선보이는 것들로, 최고의 기술진을 통해 조심스럽게 복원되었다. 이 오페라 필름들에 담긴 펠젠슈타인의 음악적 및 시각적 언어는 현대의 오페라 애호가들에게도 변함 없는 창조적 영감을 제공해줄 것이다.



Arthaus DVD 101 345
[12DVDs]



Arthaus DVD 102 061

베토벤: 장엄미사

보체나 하라시모비츠(소프라노)/ 모니카 그룹(알토)/ 제리 해들리(테너)/ 프란츠 요제프 젤리히(베이스)/ 런던 필하모닉 합창단/ 길버트 레바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05년 세계청년대회 기념 콘서트에서 연주된 베토벤의 장엄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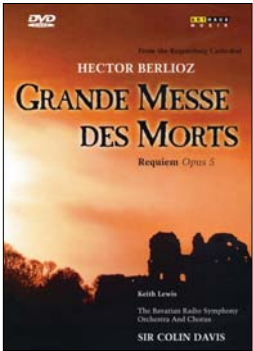
베토벤의 장엄미사는 바흐의 미사 B단조와 더불어 고금의 수많은 미사곡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정점에 놓여있는 종교음악의 걸작이다. 본 DVD는 독일 쾰른에서 거행되었던 20회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톨릭 청년 축제)를 기념하여 쾰른대성당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본 콘서트에 앞서서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낭독했고, 그 역시 본 DVD에 고스란히 수록되어있다.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교황청의 굵직굵직한 음악행사를 전담함으로써 바티칸 최고의 영예인 성 그레고리 훈장과 기사작위를 수여받았던 미국 지휘자 길버트 레바인이 본 콘서트의 지휘봉을 잡았고, 런던 필하모닉 합창단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담당하였다. 다국적으로 구성된 독창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폴란드 출신의 소프라노 보체나 하라시모비츠, 스웨덴의 메조 모니카 그룹, 미국의 테너 제리 해들리, 독일의 베이스 프란츠 요제프 젤리히가 독창자로 나섰다. 특히 2007년 자살한 비운의 테너 제리 해들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에 더욱 감회가 새로운 영상이다.

베를리오즈: 레퀴엠

키스 루이스(테너)/ 콜린 데이비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이 시대 최고의 베를리오즈 스페셜리스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레퀴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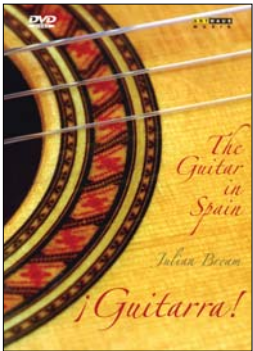
베를리오즈의 레퀴엠은 베르디의 레퀴엠과 더불어 가장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종교합창곡으로 손꼽힌다. 1837년 프랑스 정부는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념식에 사용될 음악을 베를리오즈에게 위촉하였다.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갈망하고 있던 베를리오즈는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방대한 규모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이 거작을 단숨에 써내려갔다. 스코어에 표기된 연주 규모는 100명이 넘는 현악주자들과 8대의 바순, 12대의 호른, 16대의 팀파니, 10대의 심벌즈 등이 포함된 본 오케스트라 외에도, 연주회당의 모서리에 각각 배치된 4개조의 브라스밴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합창단의 규모도 200명을 넘어선다. 베를리오즈는 후일 '단 하나의 작품만을 남긴다면 이 레퀴엠을 택하겠다'고 회고했을 정도로 이 작품에 자부심을 가졌다. 본 DVD는 1989년 레겐스부르크 대성당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현존 최고의 베를리오즈 스페셜리스트인 콜린 데이비스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지휘한 소중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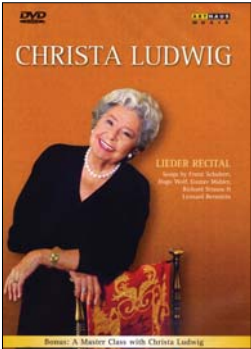
Arthaus DVD 102 027

줄리안 브림이 들려주는 스페인 기타의 화려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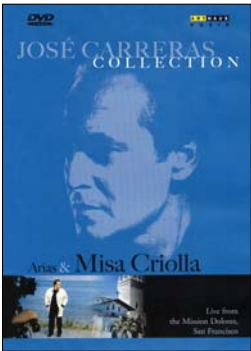
본 DVD는 우리 시대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줄리언 브림이 출연한 스페인 기타음악의 역사를 다룬 8편의 시리즈물로 구성되었다. 스페인의 전성기였던 르네상스시대 르네상스 기타와 기타의 사촌격인 비후엘라를 위한 무다라와 밀란 등의 음악을 다룬 1편, 이탈리아의 음악이 유입되었던 바로크 시대에 활약했던 산츠, 구에라프 등을 소개하는 2편, 기타의 베토벤이라고 불리던 페르나도 소르의 음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고전시대의 3편, 19세기의 유명한 기타 제작자 안토니오 데 토레스와 타레가의 음악들, 그리고 플라멩코 음악 등을 다룬 4편, 5편과 6편은 19세기 말기에 새로운 음악사조로 등장한 국민주의 작곡가들이 그라나도스와 알베니스의 음악들에 각각 할당되었다. 대연주가 세고비아의 등장과 토로바, 로드리고 등의 20세기 기타음악을 다룬 7편, 마지막 8편은 스페인 기타 음악의 정수라고 같은 작품인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기타음악애호가들을 위한 줄리언 브림의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놓치지 마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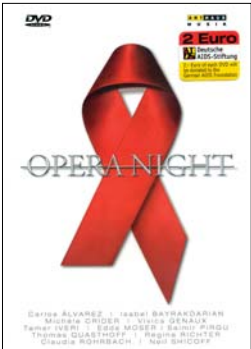
Arthaus DVD 102 003
[2DVDs]



Arthaus DVD 102 149



Arthaus DVD 101 405



Arthaus DVD 101 105

크리스타 루트비히: 리트 리사이틀

루트비히가 가장 사랑했던 슈베르트와 후기 낭만시대 리트 실황

독일의 위대한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타 루트비히(1928~)의 1994년 그리스 아테네 리사이틀 실황이다. 그녀는 화려함의 유혹을 뿌리치며 여물어간 정통파 가수로 일세를 풍미했다. 유명한 성악가 부모를 둔 집안에서 태 어났으며 18세에 데뷔하여 최고의 오페라 메조소프라노로 우뚝 섰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는 중에 갑작스런 목소리의 퇴조가 일어난 것이다. 루트비히는 현명 하게도 오페라 레퍼토리를 점점 거둬들이고 리트 가수로 전향을 꾀함으로써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 갔고 결국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이 영상물은 함께 발매된 〈겨울 나그네〉(ARTHAUS 102 147)와 더불어 리트 가수로서 루트비히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좋은 커플링을 이룬다. 66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륜과 지성으로 리트의 진수를 뽐아낸다. 슈베르트뿐 아니라 루트비히가 너무나 사랑했던 후기 낭 만시대의 리트들, 즉 후고 볼프, 구스타프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곡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보다 5년 후에 빈의 볼크스테아테르에서 행한 마스터클래스가 덤으로 실린 것 또한 훌륭한 보너스다.

호세 카레라스: 미사 크리오야

제3세계 미사곡의 대표작, 〈미사 크리오야〉를 카레라스가 열창하다

1962년부터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라틴어 뿐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에 의한 가톨릭 전례가 허용됨 에 따라 각지의 전통음악을 전례에서 사용되는 것이 촉진되었다. 이중 1963년 아리엘 라미레즈가 작곡한 '미 사 크리오야'는 남미 전통음악을 이용한 것으로 짧은 시간 만에 제3세계 미사의 대표작으로 부상한다. 제목 에 사용된 '크리올'이란 백인과 흑인의 혼혈을 뜻한다. 합창단, 독창자, 오르간 혹은 피아노, 다양한 라틴 아 메리카 타악기로 연주되는 이 곡은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 데이 등 미사의 전통적 구성을 따르면서도 안데스 민속음악, 고원지대의 인디오 춤곡, 아르헨티나 민속음악 등을 채택했다. 원래 아르헨티나 여가수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로 유명했는데 호세 카레라스가 부르면서 클래식 영역에서도 큰 환영을 받 게 된다. 이 영상물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실황이다. 카레라스가 백혈병에서 막 회복한 시점이며 로마 에서 벌어진 첫 '쓰리 테너 콘서트' 직전이다. 피가 터질 듯 열창하는 카레라스 특유의 스타일에다 병에서 회 복한 것을 감사드리는 영적인 감성이 더해진 감동적인 콘서트다. 〈미사 크리오야〉뿐 아니라 다섯 곡에 달하는 남미 노래도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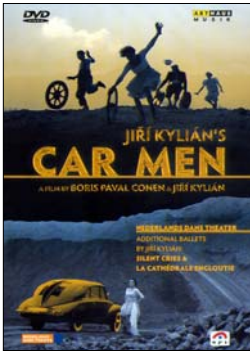
오페라의 밤: 2005년 쾰른

독일 에이즈 기금 마련을 위한 2005년 쾰른의 오페라 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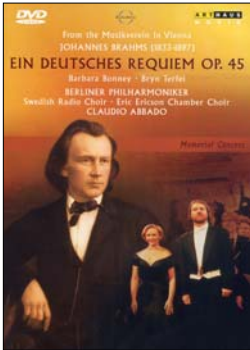
지구상의 4천만 명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되어있고 이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매년 3백만 명 이 사망하고 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음악회를 준비 했고 2005년 7월, 쾰른에서 두 번째 자선 콘서트가 열렸다. 해설이 곁들여진 음악회한 점이 본 실황의 특징 인데, 쾰른 오페라와 관련이 있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한 무대에 섰다. '작은 거인' 토마스 크바스토프(베이 스바리톤)를 비롯하여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바레즈(바리톤), 흑인 소프라노 미셸 크라이더, 닐 쉬코프(테너), 독일의 원로 소프라노 에다 모저가 자리를 빛냈고, 젊은 유망주로는 알바니아의 사이미르 피르구(테너), 미국 의 비비카 주노(메조소프라노), 그루지아의 타마스 이베리(소프라노), 레바논 태생의 이자벨 바이라크다리안(소 프라노) 등이 가세했다. 132센티미터의 작은 키에다 손가락조차 제대로 발육하지 못한 크바스토프의 열창은 실로 감동적이다. 〈토스카〉의 테너 아리아 두 곡을 부른 닐 쉬코프는 카레라스 이상의 열창이다. 로시니의 〈 신데렐라〉 피날레를 노래한 비비카 주노의 경이로운 콜로라추라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며, 타마르 이베리 는 지극히 잘 다듬어진 미성으로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Arthaus DVD 102 115



Arthaus DVD 102 101



Arthaus DVD 101 047

지리 킬리안: 발레 〈결혼〉, 〈시편 교향곡〉, 〈토르소〉

DVD로는 처음 소개되는 젊은 시절 지리 킬리안 걸작 안무

체코 프라하 출신의 안무가 지리 킬리안은 1975년 불과 28세의 나이로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의 공동 예술감독으로 초빙되었고 2년 후엔 단독으로 그 자리를 맡아 1999년까지 장기집권하며 이 무용단을 현대무용의 메 카로 끌어 올렸다. 자발적인 의사로 퇴임한 이후에도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안무가로 첫 손에 꼽히고 있다. 이 영상물에는 과거 비디오나 LD로 나온 적은 있지만 DVD 로는 처음 소개되는 킬리안의 젊은 시절 작품 세 편이 수록되었다. 이전에 안무된 것을 1983년과 이듬해에 찍은 것들인데,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 의한 〈결혼〉과 〈시편교향곡〉,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작곡가 타케미츠 토루의 음악에 의한 〈토르소〉이다. 이렇게 세 편이 함께 묶인 적도 처음인데, 각 작품 공히 인간 존재의 미스 터리와 그 내적인 면모를 춤으로 탐구해나가는 킬리안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다. 특히 〈결혼〉은 예식에 집중한 브로니슬라바 니진스카의 오리지널 안무와 달리 신랑신부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편 교향곡〉은 효과적인 군무의 활용으로 격찬을 받았다. 가장 초기작인 〈토르소〉에서는 두 남녀만이 등장하여 춤을 추는 데 여기서 여인은 실재할 수도 있고 남자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대상일 수도 있다.

지리 킬리안: 발레 〈카 멘〉

비제의 〈카르멘〉을 기발한 흑백영상으로 풀어낸 천재 안무가의 솜씨

체코 출신의 천재적 안무가로 오랫동안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를 이끌면서 20세기 무용의 스타로 각광받은 지리 킬리안은 다방면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로 유명하지만 영화적 효과에도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특히 고전 영화에 관심이 많다. 〈카 멘(Car Men)〉은 그 두 분야가 결합된 특이한 작품인데 제목을 통해 서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하나는 비제의 유명한 오페라, 다른 하나는 차(car)와 관계된 사람들 (men)이다. 결국 둘 다 관련된다. 〈카르멘〉을 편곡하여 사용하면서도 내용은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흑백영화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네 사람의 이름은 카르멘, 돈 호세, 미카엘라, 에스카미요로서 모두 〈카르멘〉에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킬리안이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에 바치는 찬사이며 무용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기본이다. 킬리안의 아내이기도 한 사비나 쿠퍼버그가 카르멘 역을 맡았다. 최신작인 이 작품 외에도 1980대의 걸작인 〈황량한 사원〉, 〈침묵의 외침〉이 수록되었다. 둘 다 드뷔시 음악을 사용하는 데 〈침묵의 외침〉에서는 쿠퍼버그가 인간 내면의 고독을 솔로로 표현한다.

브람스: 독일 레퀴엠 Op.45

연주: 바바라 보니(소프라노)/ 브린 터펠(바리톤)/ 베를린 필/ 스웨덴 방송합창단/
에릭 에릭슨 실내 합창단/ 지휘: 클라우디오 아바도

1997년 브람스 타계 100주년 기념 연주회 실황

슈만과 자신의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며 썼던 브람스의 가장 위대한 합창곡 〈독일 레퀴엠〉이 믿음직한 아바도 의 손길로 빛어졌다. 아바도는 똑같은 악단과 합창단으로 이미 1992년에 명 녹음을 남긴 바 있는, 이 곡에 정 통한 지휘자다. 콘서트 내용은 기념비적인 것인데, 브람스가 타계한지 100주년이 된 해인 1997년 4월에 작곡 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빈의 무직페라인에서 있었던 연주회 실황이기 때문이다. 제 5곡에서 두 손을 모으 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하는 바바라 보니, 제 3곡에서 우렁차고 위엄 있게 노래하는 브린 터펠도 너무 좋 다.



Arthaus DVD 101 465
[2DVDs]

벨리니: 노르마

피오렌차 체돌린스(노르마)/ 소냐 가니시(아달 지사)/ 빈센초 라 스콜라(폴리오네) 외/
줄리아노 카렐라/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오페라의 명가 리세우 극장이 심혈을 기울인 최신판 <노르마>

현재 유럽 오페라 계에서 극장의 위상 변화를 대표하는 곳은 스페인 카탈루냐의 주도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대극장이다. 1994년 1월의 화재로 옛 극장 건물이 사라진 후 1999년에 재개관했는데, 재건축 과정에서 첨단 설비를 장착한 덕분에 지금은 밀라노의 라 스칼라, 런던의 코벤트 가든,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빈 국립 오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일류 가극장으로 부상했다. 여기 수록된 <노르마>는 2007년의 실황이다. 벨리니가 “나의 배가 바다에 빠진다면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이 작품만은 건지고 싶다”고 말했다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작이고, 칼라스 이래 웬만큼 잘해서는 칭찬받기 어려운 오페라인 만큼 리세우 대극장은 최고의 가수들을 초청했다. 현역 드라마틱 소프라노를 대표하는 피오렌차 체돌린스(노르마), 벨칸토 오페라의 메조소프라노 중에서 최고라는 소냐 가니시(아달지사), 카랑카랑한 음색으로 무대를 지배하는 빈센초 라 스콜라(폴리오네) 등 이탈리아의 일류 가수들이 스페인의 한 극장에 모인 것이다.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연출자 프란시스코 네그린도 이번만큼은 고전적인 격조를 살려둔 상태에서 세심한 창조력을 더했다. 칼라스도, 서덜랜드도, 카바예도 없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영상자료다.

[보조자료]

○ <노르마>는 소프라노를 연약하게만 그렸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역사에서 여장부형 주인공을 등장시킨 최초의 작품에 속한다. 노르마는 종교지도자인 동시에 실질적인 정치지도자로 갈리아 지방을 이끌며 로마 점령군과 긴장상태를 유지한다. 문제는 로마 장군 폴리오네와 금지된 사랑을 나누는 결과로 아이까지 숨겨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젊은 여사제 아달지사가 폴리오네의 새로운 연인으로 등장하면서 극의 긴장이 고조된다. 그러나 복수의 기회가 다가온 순간, 노르마는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여 감동적인 드라마를 마무리한다.

○ 소프라노 피오렌차 체돌린스(1967~)는 바르바라 프리틀리, 파트리차 치오피 등과 함께 현재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중견 소프라노를 대표한다. 특히 무거운 소릿결과 우렁찬 성량, 섬세한 연기로 호평을 얻고 있다. 푸치니를 위시한 19세기 후반 이후의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실력을 발휘하는데, 이번엔 1830년대에 작곡된 벨칸토 오페라 <노르마>로 다시금 실력을 발휘했다. 테너 빈센초 라 스콜라(1958~)는 도니체티의 희가극으로 오페라 경력을 시작해 벨칸토 오페라 전체를 자신의 주특기로 삼았다. 물론 벨칸토의 일부인 베르디의 초기, 중기 작품까지도 섭렵했다. 목소리가 무척 청명하기 때문에 파바로티를 연상시키며 요즘은 <아이다>나 <토스카> 등도 자주 부른다. 그러나 역시 그의 본령은 <노르마>같은 벨칸토 오페라다. 날카롭고 까랑까랑한 음색이 내면적인 배역보다는 선율적이고 외향적인 스타일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Arthaus DVD 101 353

바그너: 라인의 황금

마리오 호프(보탄)/ 토마스 뢰베스(알베리히)/ 에린 케이브스(로게)/ 크리스틴 한슈만(프리카) 외/
칼 세인트 클레어/ 바이마르 슈타츠헤펠레

바이마르의 무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태어난 바그너의 '링' 사이클

중부 독일 튀링겐 지역의 중심도시인 바이마르는 독일 음악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도시다. 바흐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이며, 리스트가 로맨틱 관현악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던 근거지였기도 하다. 바이마르는 바그너에게도 특별한 곳이다. '니벨룽의 반지'라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머릿속에 처음 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바이마르 국립가극장 무대에 처음 공개되어 독일 음악계에 큰 반향을 몰고 왔었던 미카엘 숄츠의 '링' 프로덕션은 이곳이 이 거작의 싹이 처음 자라났던 배양지였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숄츠는 라인의 동기의 첫 음이 연주되기 이전부터 드라마를 시작한다. 노르 역할을 맡은 세 명의 소녀가 주고받는 짧은 대화는 바로 '링'의 아이디어를 처음 담았던 원작인 '지크프리트의 죽음'의 프롤로그를 위해 바그너가 준비했던 대사들을 옮긴 것이다. 본 DVD는 2008년 같은 곳에서 리바이벌된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실력파 바그너 가수들의 열연과 바이마르 슈타츠헤펠레의 탄탄한 앙상블, 그리고 미국 출신 지휘자 칼 세인트 클레어의 명쾌한 작품해석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링' 시리즈를 더욱 기대케 만든다.

[보조자료]

○ '라인의 황금'은 '니벨룽의 반지'의 서막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전체 4부작 중 가장 짧으나, 이 거대한 시리즈의 드라마적인 배경과 더불어 이후 3 작품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유도동기(Leitmotif)들이 차례로 제시되는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다. 작품의 대본은 북유럽 신화를 기초로 바그너 자신이 만들었다.

○ 워낙에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에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곤란하지만,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니벨룽의 난장이 알베리히는 라인의 처녀들이 지키고 있던 황금을 강탈한다. 그는 이 황금을 녹여 절대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만들고, 그 힘을 빌려 지하세계 니벨하임의 지배자로 거듭난다. 한편 신들의 우두머리인 보탄은 거인형제 파츨트와 파프너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새로운 성채 발할라를 완성한다. 하지만 사례를 지급하지 않아 거인들의 위협을 받게 된다. 보탄은 불의 신 로게의 꾀를 빌려 니벨하임으로 내려가 알베리히의 황금을 강탈하여 이로써 거인들의 채무를 변제한다. 모든 것을 잃은 알베리히는 이 반지에 파멸의 저주를 건다. 보탄 역시 반지의 권능에 사로잡히지만, 대지의 여신 에르다의 충고를 받아들여 마지못해 거인들에게 이를 양보하고 만다. 반지는 거인형제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파프너는 파츨트를 살해하고 만다. 알베리히의 저주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보탄은 언제가 이 반지로 인해 신들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다른 신들을 이끌고 발할라로 들어가면서 '라인의 황금'이 종결된다.



Arthaus DVD 101 327

슈만: 게노베바

율리안 반제(게노베바)/ 셴 마테이(골로)/ 마틴 겐트너(지크프리트)/
코르넬리아 칼리슈(마르가레타) 외/ 니콜라스 아르농쿠르/ 취리히 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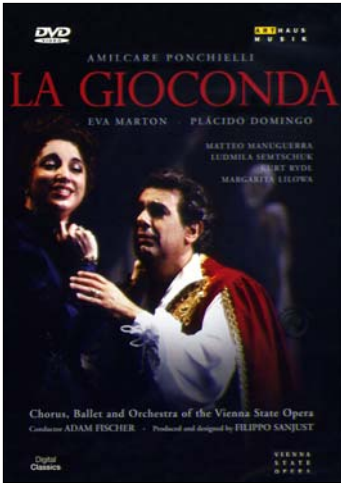
슈만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 쿠세이의 잔혹극으로 재탄생하다.

‘게노베바’는 슈만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다. 중세 유럽의 인기 설화 중 하나인 브란트의 주느비예브 이야기를 토대로 완성한 작품으로, 작곡 당시 작곡가와 교류가 있었던 바그너의 영향이 전곡에 걸쳐서 강하게 드러난다. 초연 이후부터 오래도록 비인기작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작품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니콜라스 아르농쿠르다. 아르농쿠르는 1996년 이 작품의 걸출한 CD녹음을 완성한 바 있으며, 2008년 취리히 오페라 무대에 올렸던 본 공연실황을 통해서도 자신이 ‘게노베바’의 열렬한 전도사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아르농쿠르의 걸출한 음악적 해석과 더불어, 손대는 작품들마다 논란을 양산했던 문제 연출가 마틴 쿠세이의 파격적인 연출 역시 이 공연을 화젯거리로 만들어 놓았다. 게노베바의 정절을 상징하는 순백의 실내공간은 선혈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연출의 잔혹성을 한층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 그간 독일 리트 분야에서 걸출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율리안 반제는 이 영상을 통해 명성에 걸맞은 뛰어난 가창과 더불어 쿠세이가 요구하는 난이도 높은 연기 또한 훌륭히 해결해 내었다.

【보조자료】

○ 게노베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브란트의 영주 지크프리트는 십자군에 참가하기 위해 영지를 떠나며, 심복 골로에게 자신의 아내 게노베바를 지켜줄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골로는 게노베바를 몰래 흡모해왔다. 골로는 게노베바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거부당한다. 복수심에 불탄 골로는 게노베바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가고, 멀리 떨어져 있던 지크프리트에게도 게노베바의 불륜에 대한 소식이 전달된다. 진노한 지크프리트는 골로에게 게노베바를 죽일 것을 명한다. 골로는 자신을 받아들이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지만, 게노베바는 끝내 이를 거부한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지크프리트가 도착하고 영지의 모든 이들이 게노베바의 지고한 정절을 찬양하면서 극이 마무리된다.

○ 오스트리아 출신의 오페라 연출가 마틴 쿠세이는 그간 내놓는 작품들마다 술한 논란거리를 만들어왔던 악동 연출가이다. 그의 연출작들 중에서 상당수가 DVD로 상품화되었는데,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키의 맥베스부인’(네덜란드 오페라), R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빈 슈타츠포퍼), 그리고 M22 모차르트 오페라 전집에 포함되었던 ‘돈조반니’와 ‘황제 티토의 자비’가 모두 그의 대표적인 연출작들이다.



Arthaus DVD 100 233

폰키엘리: 라 조콘다

에바 마르톤(라 조콘다)/ 플라시도 도밍고(엔초) 외/ 아담 피셔/ 빈 국립 오페라

초연 당시 오리지널 세트를 고스란히 재현한 폰키엘리의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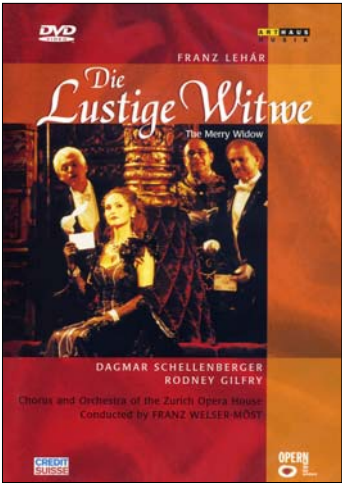
〈라 조콘다〉는 밀라노 음악원에서 푸치니를 가르치기도 했던 아밀카레 폰키엘리의 대표작이다. 엔초(테너)의 아리아 ‘하늘과 바다’, 조콘다(소프라노)의 아리아 ‘자살’, 그리고 극중에 삽입된 관현악곡 ‘시간의 춤’ 등 유명한 곡이 많다. 1876년에 초연된 이 오페라는 19세기말에 불을 이룬 베리조모(사실주의) 오페라의 효시로 불리기도 한다. 이름 대신 사람들로부터 그저 조콘다, 즉 거리의 가희(歌姬)로 불리는 천한 신분의 여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베네치아에서 추방당했다가 몰래 돌아온 귀족 엔초와 사랑을 나누지만 그는 옛 연인 라우라와 재회하자 조콘다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악랄한 밀정 바르나바는 눈먼 어머니만 남은 조콘다에게 도저히 못할 짓을 하고 만다. 이 영상물은 큰 화제를 모았던 1986년 빈 국립오페라 실황이다. 처절하게 버티다가 비극에 굴복하는 조콘다 역을 에바 마르톤이 열창했고, 플라시도 도밍고는 과연 위대한 테너답다. 그러나 진정한 화제는 연출을 맡은 필리포 산주스트가 초연 당시와 똑같은 무대 세트를 재현했다는 것이었다. 구식처럼 보이지만 19세기의 무대전통을 확인하는 귀한 실황이다.

【보조자료】

○ 아밀카레 폰키엘리(1834~1886)는 베르디의 그늘에 가려있지만 명작 〈라 조콘다〉로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에 새로운 색채를 더한 작곡가이자 밀라노 음악원에서 푸치니와 마스카니를 길러낸 뛰어난 스승이기도 하다. 〈라 조콘다〉는 그의 대표작인데, 동료 작곡가이자 문재가 뛰어났던 아리고 보이토의 대본을 사용했다. 보이토는 베르디의 〈오텔로〉와 〈팔스타프〉의 대본은 물론 〈메피스토펠레〉를 직접 작곡한 당대의 박학다식형 예술가였다.

○ 주인공 조콘다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으로 생계를 잇고 있으며 눈먼 노모도 지켜야 한다. 그런 그녀에게 엔초의 존재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마저 옛 애인에게 돌아가고, 이전부터 조콘다를 유혹한 밀정 바르나바는 오로지 그녀의 육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조콘다는 어머니를 한번 구해 준 자신의 연적 라우라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의 목숨을 구한다. 조콘다에게 끝내 거절당한 바르나바는 눈먼 모친을 살해하고, 엔초와 라우라는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신들의 행복을 향해 떠나버린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선택은 이제 단 하나뿐!

○ 오페라의 대단원에서 조콘다가 부르는 비극적 아리아 ‘자살’은 위대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죽은 후에 그 메모가 그녀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물리적인 자살은 아니었으나 죽음의 오기를 기대한 칼라스의 속내가 이 쪽지에 담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rthaus DVD 100 451

레하르: 유쾌한 미망인

다그마르 쉴렌베르거(한나)/ 로드니 질프리(다닐로)/ 피오토르 베찰라(카미유) 외/
프란츠 벨저뫼스트/ 취리히 오페라

너무나 친근하고 유명한 노래가 끊이지 않는 최고의 빈 오페레타

오페레타란 '경가극(輕歌劇)'이라 번역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분위기가 지극히 가벼운 오페라이다. 파리의 오페레타를 모방하였고, 요한 슈트라우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전성기를 맞은 빈 오페레타는 1900년경에 갑자기 침체기를 맞이했는데, 이를 다시 만개시킨 이가 헝가리 군악대장 출신인 프란츠 레하르요, 구체적인 작품으로는 <유쾌한 미망인>(1905)이다. 미망인이 유쾌하려면 첫째 죽은 남편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하고, 둘째 상속받은 재산이 충분해야 한다. 주인공 한나 글라바리는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젊은 미망인이다. 거처를 파리로 옮긴 그녀 앞에 옛 연인 다닐로 백작이 나타난다. 자존심 강하지만 속으로 여전히 사랑하는 두 사람의 밀고 당김이 이야기의 뼈대를 구성한다. 2004년 취리히 오페라 실황인 본 영상물은 이 오페레타의 미덕을 죄다 포착했다. 다그마르 쉘렌베르거(한나)와 로드니 질프리(다닐로)는 희극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살렸고 프란츠 벨저-뫼스트의 지휘는 '빌리아의 노래', '여자, 여자, 여자', '입술은 침묵하고' 같은 친숙한 선율이 끊이지 않는 이 명작에 빠져드는 즐거움의 삼매경을 선사한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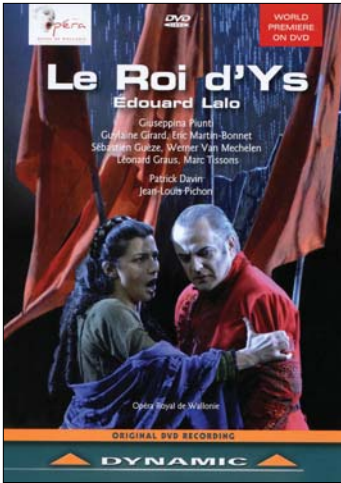
○ 오페레타는 원래 프랑스 문화의 산물이다. 파리에 정착한 유대계 독일인 자크 오펜바흐가 창안한 것인데 작은 규모로 개발하고 경망스러운 정도의 가벼운 내용과 음악을 다룬다. 이것이 큰 히트를 거두자 점점 규모도 커지고 기존의 오페라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가 프랑스를 넘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도 성공을 거두자 빈의 명사들은 왈츠의 전통을 살린 새로운 오페라를 꿈꾸고 왈츠의 왕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게 오페레타의 작곡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빈 오페레타가 시작되었고 한때 슈트라우스 외에 여러 대가들이 수많은 작품을 양산했다. 그러다가 1899년 슈트라우스가 타계할 즈음에 이상할 정도로 다른 대가들도 모두 세상을 떠난 바람에 갑작스런 휴지를 맞게 되었는데 그 정적을 깨뜨린 작품이 프란츠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인 것이다.

○ 헝가리 사람이었던 레하르는 원래 빈 오페레타에 포함되어 있던 동유럽적인 색채를 더욱 강하게 살렸다. 한나 글라바리와 다닐로는 아예 폰테베드로라는 가상의 동유럽 소국 사람들이란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2막에서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의 춤곡을 충분히 살린 동유럽 무곡의 향연이 펼쳐진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나와 다닐로의 사랑이 다시 맺어지는 장면에서는 비엔나 왈츠풍의 선율이 이어진다. 레하르는 <메리 위도우>외에도 <파가니니>, <미소의 나라>, <주디타> 등의 성공작을 남겼다.



Dynamic DVD

www.dynami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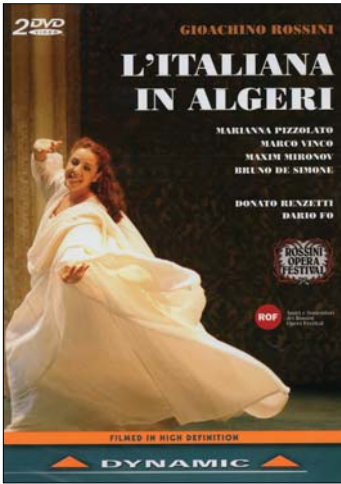
Dynamic DVD 33592

랄로: 이스의 왕

주제피나 피운티(마르가레)/ 세바스티앵 구에제(밀리오)/ 에릭 마르탱-보네(왕)/
길랭 기라르(로젠) 외/ 패트릭 다뱅/ 오페라 로알 드 왈로니

브레타뉴의 전설에 기초한 랄로의 걸작 오페라

스페인교향곡과 첼로협주곡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곡가 에두아르 랄로는 2편의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첫 오페라인 '피에스크'가 작곡가의 생전에 단 한 번도 공연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1880년에 완성되어 1888년에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되었던 '이스의 왕'은 1년 동안 100회 이상이나 공연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이스의 왕'은 그가 살았던 브레타뉴지역의 전설을 토대로 완성한 것으로, 어긋난 사랑에 대한 복수심에 눈멀어 조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스의 공주 마르가레의 이야기가 주요내용을 이룬다. 프랑스 오페라 고유의 섬세함과 바그너의 영향, 그리고 랄로 특유의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어우러진 절품으로, 독립적인 콘서트 레퍼토리로도 애용되는 서곡과 3막에서 밀리오가 부르는 아리아 'Vainement, ma bien-aim?e'가 유명하다. 초연당시의 큰 인기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공연 빈도가 극히 드문 희귀작품이 되고 말았지만, 2008년 4월 벨기에 리에주의 오페라 로알 드 왈로니에서 있었던 본 공연은 이 오페라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것이다.



Dynamic DVD 33526
[2DVDs]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마리안나 피츨라토(이사벨라)/ 마르코 빈코(무스타파)/ 막심 미로노프(린도로)/
브루노 데 시모네(타테오) 외/ 도나토 렌체티/ 테아트르 코무날레 디 볼로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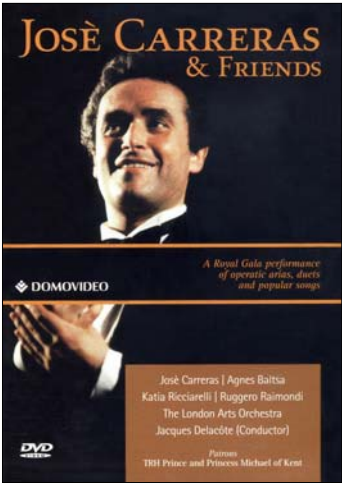
노벨 문학상 수상자 다리오 포가 연출한 로시니의 흥겨운 코믹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L'italiana in Algeri)은 로시니가 21살 때 작곡한 2막의 코믹 오페라로 작곡가 특유의 유쾌한 선율과 화려한 성악기교로 충만한 작품이다. 본 영상물은 2006년 8월 로시니의 고향 이탈리아 파사로에서 펼쳐진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 중의 공연을 수록한 것으로 현재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일급 로시니가수들의 재기발랄한 명인기를 만나볼 수 있다. 연출과 무대 및 의상 디자인은 199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인이자 오페라 연출가인 다리오 포가 맡았다. 간결하면서도 알제리의 이국적인 색채를 적당히 드러내는 감각적인 무대미술과 순간순간 웃음을 머금게 만드는 재기발랄한 연출은 여든 노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신하다. 이탈리아 바로크 오페라와 로시니의 작품들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마리안나 피츨라토, 모스크바 헬리콘 오페라가 배출한 신세대테너 막심 미로노프, 이탈리아의 차세대 바소 부파로 각광받고 있는 마르코 빈코 등으로 짜인 캐스팅 역시 탄탄하다.



Domovideo DVD

www.domovideo.com



Domovideo DVD DMM-514

카레라스와 친구들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이 주최한 최고 성악가들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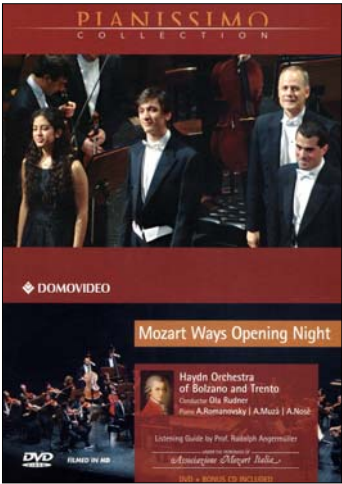
1987년, 세계 최고의 테너의 한사람으로 추앙받던 41세의 호세 카레라스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는다. 생존가능성 10%에 불과한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 그러나 평생 유약한 테너 역을 불러온 이 사나이는 놀라운 의지로 병을 극복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 만에 무대에 복귀하였으며, 1990년 로마 월드컵 결승전야에 펼쳐진 스리 테너 콘서트를 기점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어 나갔다. 온 몸을 던져 목청껏 노래하는 스타일로 화귀한 것은 아니지만 한층 이지적인 표현력과 따스한 인간미를 불어넣은 카레라스는 환갑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계를 무대로 리사이틀을 계속하는 중이다. 본 영상물은 1991년 런던 드루리 레인의 로열 극장에서 열린 갈라 콘서트 실황이다. 병에서 회복한 카레라스가 설립한 국제 백혈병 재단과 그리스 아테네의 소아병원 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이며, 카레라스와 오랜 시간을 무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최고의 파트너들, 소프라노 카티아 리차렐리,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베이스 루제로 라이몬디가 출연하여 친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선율들을 실로 정성껏 노래한 고귀한 실황이다.

모차르트: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V242,
디베르티멘토 10번 KV247
M. 하이든: 교향곡 28번

알렉산더 로마노프스키, 알렉시아 무차, 알베르토 노세(pf)/ 올라 루트너/
하이든 오케스트라/ 볼타노 & 트렌토

3명의 젊은 유망주들이 들려주는 모차르트의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북이탈리아 로베레토에서 있었던 유러피언 모차르트 웨이즈 2006의 오프닝 콘서트 실황. 모차르트의 주요 후원자였던 로드론 백작 가문과 관련된 두 작품이 연주회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V242는 로드론 백작부인이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모차르트에게 위촉한 작품으로, 후일 작곡가 자신의 손으로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알렉산더 로마노프스키를 비롯하여 각각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유망주들인 알렉시아 무차와 알베르토 노세가 이 독특한 작품의 밝고 화사한 악상과 아기자기한 앙상블을 근사하게 연주해내었다. 로드론 가문을 위한 또 하나의 작품은 디베르티멘토 10번이다. '로드론 소야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작품은 백작부인의 성인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한 것으로, 작품의 성격에 걸맞게 밝고 화사한 악상들로 가득 채워진 곡이다. 파파 하이든의 동생이자 모차르트의 긴밀한 음악동료였던 미카엘 하이든의 교향곡 28번이 함께 연주되었다.



Domovideo DVD DMM-508
[DVD + Bonus CD]



Domovideo DVD DMM-515
[DVD + Bonus CD]

거쉰: 피아노작품집

프랑소와 – 조엘 티올리에르(pf)

멋진 피아노 소품들로 다시 태어난 조지 거쉰의 대표 히트곡들

조지 거쉰은 20세기 미국 음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던 작곡가다. 재즈와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기반을 두었던 그의 활약으로 인해, 과거 유럽 음악의 모방을 벗어나서 미국 고유의 색채가 두드러지는 본격적인 아메리칸 클래식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24년 피아노와 재즈밴드를 위한 협주곡 풍의 작품인 '랩소디 인 블루'를 통해 재즈와 클래식의 접목에 멋지게 성공하였으며, 이후 '파리의 아메리칸인', '포기와 베스'와 같은 걸작들을 통해 클래식 작곡가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였다. 낙소스의 여러 음반들을 통해 프랑스 피아노 레퍼토리의 스페셜리스트로 각광받았던 프랑소와-조엘 티올리에르의 거쉰 리사이틀을 수록한 본 DVD는 2006년 7월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아름다운 콘타리니 저택의 메인 홀에서 녹화된 것이다. '랩소디 인 블루',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 '2개의조를 위한 즉흥곡', 그리고 'I got rhythm', 'It's wonderful', 'Swanee', 'Strike up the band'을 비롯한 거쉰의 대표 히트곡들을 담았다.

베르디: 나부코

피에로 카푸칠리(나부코)/ 운치오 토디스코(이스마엘)/ 로베르토 스칸투치(차카리아) 외/
안톤 과다뇨/ 아레나 디 베로나

베로나 페스티벌 최고의 인기 오페라, <나부코>의 생생한 실황

이탈리아 베로나의 아레나(고대 원형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한여름의 페스티벌은 오페라 공연계의 아이콘이다. 한 세기에 달하는 이 페스티벌의 역사에서 <나부코>는 <아이다> <카르멘>과 더불어 최고의 인기작으로 꼽힌다. 성서에서 취재한 스펙터클 대작일 뿐 아니라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은 이탈리아 청중들이 가장 사랑하고 큰 감동을 받는 합창곡이기 때문이다. 1992년 페스티벌의 <나부코>는 베로나 출신으로 이 페스티벌의 단골 연출가였던 지안프랑코 데 보시오가 연출했다. 동 페스티벌의 전통에 가장 충실한 연출이며 극적인 완성도를 도모하면서도 가수의 가창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그야말로 오페라적 연출이다. 타이틀 롤은 낭랑하면서도 치밀한 음색과 약간 억눌린 듯한 표정연기로 유명한 피에로 카푸칠 리가 맡았다. 이탈리아를 대표한 바리톤답게 바빌로니아 왕의 권위와 부정(文情)을 남김없이 토해낸다. 야외무대에 어울리는 강한 음색을 지닌 당대의 명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가운데 이스마엘레를 부른 강렬한 스피토 음색의 테너 운치오 토디스코에게도 주목하기 바란다. 타계하기 얼마 전 우리나라를 다녀간 바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진정한 거장 안톤 과다뇨가 지휘했다.



Domovideo DVD DMM-516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30,000개 음반 / 43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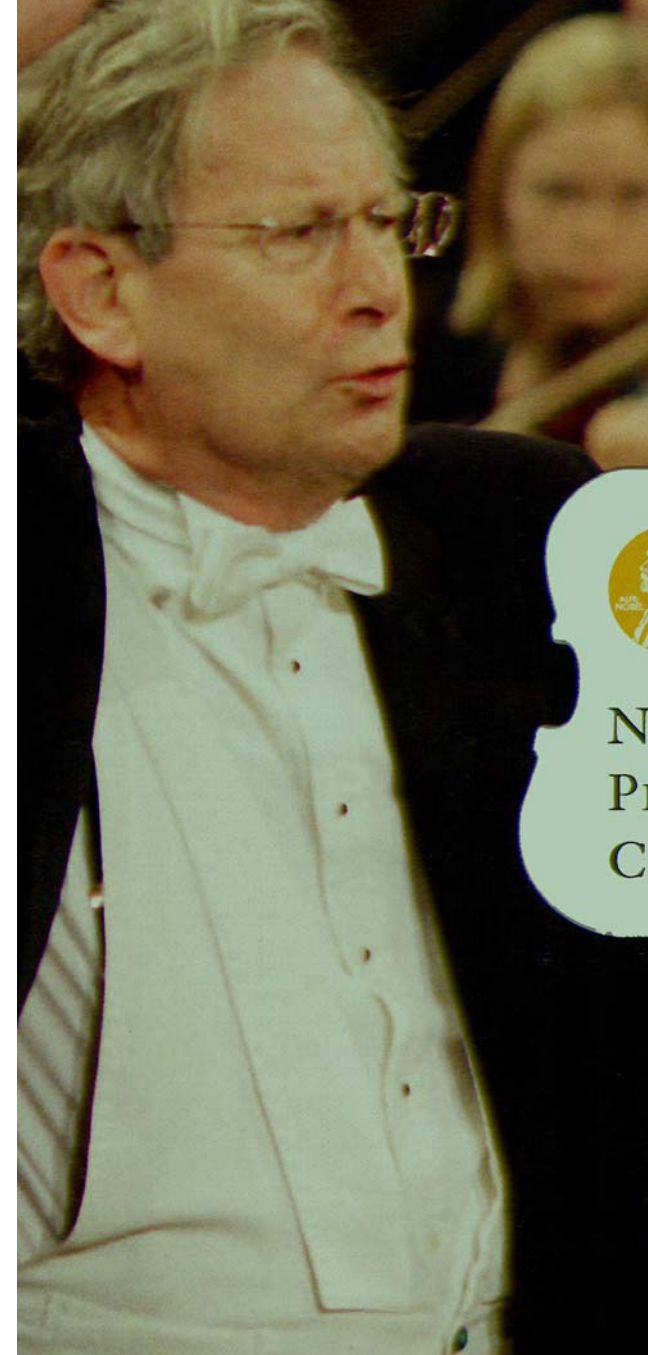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컨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험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110호
Tel. 02 717 1070 / E-mail: naxoskorea@naxos.com
www.naxos.co.kr



최고의 과학자들을 위해 **가디너**가 마련한
최고의 음악축하연

2008 노벨상 기념 콘서트 실황

*드보르작: 교향곡 7번
*모차르트: 미사 C단조

미아 페르손(sop), 안 할렌베리(ms),
헬게 뢰닝(te), 페테르 마테이(bass),
에릭 에릭손 합창단,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로알 스톡홀름 필하모닉



**NOBEL
PRIZE
CONCERT**



Medici Arts DVD 2057438

**절찬리
판매중**



표지사진
마르타 아르헤리치

〈아울로스뉴스〉 2009년 4, 5월호
통권 제 37호 발행 : 2009년 6월 5일
발행인 : 임용욱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